

The legacy of Korean painting
in Chungbuk

충북
한국화의
백

목차

인사말

- 충북갤러리 기획전을 축하하며 04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 충북한국화의 脈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김갑수** 06

평론

- 충북한국화의 脈
송희경 (겸재정선미술관 관장) 08

작가

- 심향 박승무 (1893~1980) 34
- 월전 장우성 (1912~2005) 36
- 윤보 김기창 (1913~2001) 42
- 남정 박노수 (1927~2013) 46
- 창운 이열모 (1933~2016) 52
- 이석 임송희 (1938~2022) 56
- 소정 황창배 (1947~2001) 60

전시 전경

- 충북 한국화의 맥
2024. 3. 14, 목 - 4. 1, 월 64

작가 약력

- 심향 박승무 (1893~1980) 90
- 월전 장우성 (1912~2005) 91
- 윤보 김기창 (1913~2001) 92
- 남정 박노수 (1927~2013) 93
- 창운 이열모 (1933~2016) 94
- 이석 임송희 (1938~2022) 95
- 소정 황창배 (1947~2001) 96

Contents

Greetings

- Celebrating the Special Exhibition at Chungbuk Gallery 05
Kim Young-hwan Governor of Chungcheongbuk-do
- The Legacy of Korean Painting in Chungbuk
President of Chungbuk Cultural Foundation **Kim Gap-soo** 07

Critical Essay

- The Legacy of Korean Painting in Chungbuk
Song Hee-kyung (Director of Gyeongjae Jeong Seon Art Museum) 18

Artists

- Park Seung-mu (1893~1980) 34
- Chang Woo-sung (1912~2005) 36
- Kim Ki-chang (1913~2001) 42
- Pak No-soo (1927~2013) 46
- Lee Yul-mo (1933~2016) 52
- Lim Song-hee (1938~2022) 56
- Hwang Chang-bae (1947~2001) 60

Installation View

- The legacy of Korean Painting in Chungbuk
Mar 14(Thu) ~ Apr 1 (Mon), 2024 64

Artists CV

- Park Seung-mu (1893~1980) 90
- Chang Woo-sung (1912~2005) 91
- Kim Ki-chang (1913~2001) 92
- Pak No-soo (1927~2013) 93
- Lee Yul-mo (1933~2016) 94
- Lim Song-hee (1938~2022) 95
- Hwang Chang-bae (1947~2001) 96

충북갤러리 기획전을 축하하며

충북갤러리 2024년 첫 번째 기획전《충북 한국화의 맥(脈)》 개최를 164만 충청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서울 인사동에 충북갤러리를 개관하여 충북의 우수한 작가들의 다양한 예술 활동과 전시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개관전시회는 충북 미술의 뿌리를 재확인하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모색해보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기획전은 전통 한국화단에서 한국화의 계승과 발전 과정에서 한국화의 실험적 전개와 확산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충북 연고 작고 작가 일곱 분의 작품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현대미술이 넘쳐나는 작금의 미술 세계에서 한국화라는 전통을 고수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화법을 발전시켜 나간 작가들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 지역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전시 준비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평생을 바쳐 화업(畵業)에 몰두한 일곱 분의 숭고한 예술정신이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충북갤러리의 기획전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전시회가 열릴 수 있도록 작품 전시를 허락해 주신 유가족과 소장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시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3.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Celebrating the Special Exhibition at Chungbuk Gallery

On behalf of the 1.64 million residents of Chungbuk province, I would like to extend my heartfelt congratulations on the opening of Chungbuk Gallery' s first special exhibition of the year 2024, *The Legacy of Korean Painting in Chungbuk*.

The Chungcheongbuk-do Provincial Government opened the Chungbuk Gallery in Insadong, Seoul, last year and has been supporting excellent artists from Chungbuk for their various artistic activities and exhibitions. Among others, the inaugural exhibition was a meaningful occasion to reaffirm the roots of Chungbuk art and explore new opportunities for further evolution.

In particular, this exhibition, *The Legacy of Korean Painting in Chungbuk*, is an initiative to highlight the works of seven late artists with ties to Chungbuk selected from the traditional Korean painting scene, who left substantial contributions to the experimental advances and expansion of Korean painting in the process of its succession and development. I sincerely appreciate the devotion of the local culture and arts community and the exhibition organizers to providing us with this precious occasion to shed new light on artists who chose to adhere to the tradition of Korean painting while conceiving their own unique pictorial style, all the more so in today' s art world deluged with contemporary art. I expect that this opportunity will serve as a channel for the noble artistic spirit of the seven artists who devoted all their lives to the art of painting to reach a large public who loves culture and arts.

Once again, I sincerely congratulate Chungbuk Gallery on this special exhibition and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to the families of the artists and collectors who willingly offered their consent to the exhibition of their valuable pieces of art for this event.

Lastly, I wish all those who visit the exhibition wellness and happiness in their families.

March 2024

Kim Young-hwan Governor of Chungcheongbuk-do

충북 한국화의 脈

충북문화재단은 2024년 충북갤러리 기획전으로《충북 한국화의 맥(脈)》 전시를 진행합니다. 먼저 이번 전시를 위하여 소중한 작품을 흔쾌히 대여 협조해 주신 기관, 유가족과 소장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전시는 지난 개관전에 이어 전통 한국화단에서 충북과 연고 있는 대표 작고 작가 7인을 선정하였습니다. 한국화의 전통과 계승 발전 과정에서 실험적 한국화의 전개와 확산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일곱 분(박승무, 장우성, 김기창, 박노수, 이열모, 임송희, 황창배)의 거장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통 한국화가 어떤 양식의 발전 과정을 통해 독창적으로 지속 발전해 왔는지 충북 연고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한국화의 진수를 음미하고 그 뜻과 맥(脈)이 향후 세대로 길게 전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 전통 화단에서 중요한 입지를 차지했던 충북의 주요 작가들을 살펴보면서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작가들과 작품에 대해 충북 예술의 지평을 확장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좋은 작품을 감상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충북도과 충북문화재단은 서울 인사동에 충북갤러리를 통해 충북미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충북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면서 대외 홍보·마케팅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4. 3.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김갑수

The Legacy of Korean Painting in Chungbuk

The Chungbuk Cultural Foundation holds the exhibition *The Legacy of Korean Painting in Chungbuk* as a 2024 special exhibition of Chungbuk Gallery. By opening the Chungbuk Gallery in Insadong, Seoul, the Chungcheongbuk-do Provincial Government and the Chungbuk Cultural Foundation are committed to the mission of public relations through the promotion of the excellence of Chungbuk art and support for creative activities of Chungbuk artists.

Following the previous inaugural exhibition, we have selected seven representative late artists having ties with Chungbuk who were active in the traditional Korean painting scene. The exhibition presents the works of seven masters (**Park Seung-mu, Jang Woo-sung, Kim Ki-chang, Pak No-soo, Lee Yul-mo, Lim Song-hee, and Hwang Chang-bae**) who made essential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experimental Korean painting in the history of tradition, succession, and evolution of Korean painting. By exploring the works of these artists from Chungbuk to see how traditional Korean painting has been continuously evolving in a unique way, I expect that the essence of traditional Korean painting will be profoundly appreciated and that its meaning and legacy will leave a lasting resonance to future generations.

I hope that, by delving into the works of key artists from Chungbuk who have played pivotal roles in the traditional Korean painting scene, this exhibition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approach from various perspectives artists and works that have not been actively explored in the past, broaden the horizons of Chungbuk art, and appreciate valuable pieces of art. Lastly, I would like to extend my deepest gratitude to the institutions, families of the artists, and collectors who willingly cooperated and lent their valuable collection for this exhibition.

March 2024

President of Chungbuk Cultural Foundation **Kim Gap-soo**

충북 한국화의脈

송희경 (검재정선미술관 관장)

목차

- I. 여는 글
- II. 충북에서 출생한 한국화 작가
- III. 충북과 인연을 맺은 한국화 작가
- IV. 닫는 글

I. 여는 글

대한민국 중부에 위치한 충청북도(忠淸北道, 이하 충북)는 유일하게 바다와 접하지 않은 내륙도이다. 금강 유역의 평지를 제외하면 산이 많아 겨울에는 상당히 춥고 여름에는 열대야가 매우 적어 서늘하다. 삼국시대부터 영남과 소통하기 위해 소백산 지역의 계림령(鷄立嶺)과 죽령(竹嶺)이 개통되었고 한강의 수로를 통해 강원도까지 연결되는 등,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교통 요지로 기능했다. 고대에서 근세까지의 충북 미술은 주로 불교문화에 집중되어 있었다. 범주사를 비롯한 명찰과, 이에 부속된 목조건축, 불상, 탑 등이 주를 이룬 것이다.¹⁾ 조선 후기부터는 단양, 청풍, 영춘, 제천 인근이 사군산수(四郡山水)라 명명되며 예술 창작에 적극 활용되었다. 목객들이 사군산수의 절경을 주유하며 기이한 바위와 석벽, 풍부한 물로 이룩된 아름다운 자연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것이다.²⁾

이렇듯 남다른 풍광과 예술혼이 녹아 있는 충북은 창작의 산실이였다. 이 글에서는 충북갤러리 기획전시인 《충북 한국화의脈》에 참여한 작가 7인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고찰한다. 7인의 한국화가는 충북에서 나고 자란 심향(深香) 박승무(朴勝武, 1893~1980), 월전(月田) 장우성(張遇聖, 1912~2005), 창운(蒼暈) 이열모(李烈模, 1933~2016), 이석(以石) 임송희(林頌羲, 1938~2022)와, 충북에 연고가 있는 운보(雲甫) 김기창(金基昶, 1913~2001), 남정(藍丁) 박노수(朴魯壽, 1927~2013), 소정(素丁) 황창배(黃昌培, 1947~2001) 등이다. 이 글을 통해 충북의 예술혼이 새삼 확인되고 이와 연관된 한국화 작가의 생애 및 창작 세계가 규명되기를 기대한다.

1) 충청북도 지역에서 전개된 불교미술사에 관한 논의는 김춘실, 「忠北學과 美術史」, 『충북학』 창간호(충북연구원, 1999) 참조
2) 조선 후기 사군산수도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는 이순미, 「조선후기 충청도 사군산수도(四郡山水圖) 연구-정선화풍을 중심으로-」, 『강좌 미술사』 27(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6), 참고

II. 충북에서 출생한 한국화 작가

1. 심향(深香) 박승무(朴勝武, 1893~1980)

심향 박승무는 1893년 충북 옥천군 군북면에서 출생했다. 구한말 과거에 급제하여 부승지를 지낸 큰아버지 박경양이 아들을 잃자, 동생 박도양의 아들 박승무를 양자로 삼았다. 어린 시절 옥천에서 창명 소학교(현: 죽향 초등학교)를 다녔고 집안 정혼자인 은진 송씨와 혼인한 다음 부친의 권유로 상경하여 YMCA에서 영어뿐만 아니라 유도, 일본어를 배웠다. 유도를 함께 배운 친구 가운데 소림(小琳) 조석진(趙錫鎔, 1853~1920) 문하에서 그림을 배우던 심보(心畝) 김창환(金彰桓, 1895~?)이 있었다. 소림 문하생들의 그림을 보고 자극을 받은 박승무는 부친의 눈을 피해 몰래 그림을 그리곤 했다.³⁾

결국 부친은 조석진을 찾아가 박승무의 서화 학습을 부탁했다. 이에 박승무는 조석진 자택에서 친손자 조광준(趙廣濬, 1890~?), 외손자 변관식(卞寬植, 1899~1976), 김창환과 함께 그림 공부를 시작했다. 그리고 1913년 서화미술회(書畫美術會) 강습소에 3기로 입학하여 3년 뒤인 1916년 졸업했다. 이듬해 중국 상해로 건너갔으나 3·1운동으로 중국 내 한국인의 감시가 심해지면서 1920년 일본 경찰에 의해 압송되었고, 2년간 옥천경찰서의 감시로 주거 연금을 당하다가 1922년 서울로 올라왔다. 이후 서화협회(書畫協會) 회원이 된 박승무는 조선총독부가 주관한 2회 조선미술전람회(이하 조선미전)에 〈흐린 달밤〉을 출품하여 두각을 나타냈다. 서화 형식을 토대로 개량화된 동양화를 시도하며 작가의 입지를 굳힌 것이다. 그리하여 1940년 5월 조선미술관에서 개최한《십명가산수풍경화전(十名家山水風景畫展)》에 이상범(李象範, 1897~1972), 변관식(卞寬植, 1899~1976), 노수현(盧壽鉉, 1899~1978), 이용우(李用雨, 1902~1953), 허백련(許百鍊, 1891~1977), 김은호(金殷鎬, 1892~1979), 이한복(李漢福, 1897~1940), 최우석(崔禹錫, 1899~1965), 고희동(高義東, 1886~1965) 등과 함께 초대받았다.

박승무가 사용한 호의 변천사를 살펴본다. 큰아버지가 자신의 아호인 하정(霞亭)의 첫 글자를 따서 소하(小霞)라는 호를 지어 주었다. 1910년대 후반에는 균전(筠田)을, 1920년대 중반까지 다시 소하를, 1927년부터 1940년대 초까지는 오세창(吳世昌, 1864~1953)이 하사한 심향(心香)을 썼다. 1935년부터 심향(心香)과 심향(深香)을 병행하다가 1940년 후반부터 줄곧 후자를 사용했다. 박승무는 산수화, 화조화, 사군자 등, 다양한 화목과 화제를 소화했다. 산수화에서 남다른 솜씨를 발휘한 그는 스승에게 옛 그림을 모사하여 산수화를 그리는 방식을 배웠으나 이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자연을 사생하다가 중년 이후 다시 전통 산수로 회귀했다.

유독 눈이 덮인 산전을 좋아한 박승무는 설경 산수를 많이 그렸다. 이번 전시에도 그의 설경 산수 2점이 출품되었다. 1964년에 그린 〈계촌모설(溪村暮雪)〉은 아늑한 강촌에 눈이 소복이 쌓인 겨울 풍경이다. 화면 하단에는 나지막한 언덕이 있고, 중간에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가로수와 가옥들이 늘어섰으며 상단에는 먼 산이 펼쳐져 있다. 박승무는 눈 덮인 산전을 나타내기 위해 배경에 연한 먹칠하는 외훈법을 사용했고 모든 사물에 윤곽선을 구획했다. 그 결과 깔끔하면서도 단아하고 청명한 겨울 산수가 완성되었다.

박승무는 1970년대 초반 다시 한번 동양화단의 어른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 시작은 1971년 서울 태평로 신문회관 화랑에서 열린《동양화 여섯 분 전람회》였다. 서울신문 창간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전시는 허백련, 김은호, 박승무, 이상범, 노수현, 변관식 등, 한국 근대회화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작가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은 전시였다. 이 전시를 계기로 여섯 명의 노장은 ‘육대가’로 조합되어 동양화단의 영원한 스승이 되었다.

2. 월전(月田) 장우성(張遇聖, 1912~2005)

월전 장우성은 1912년 5월 충북 충주에서 출생했다. 단양에서 잠시 어린 시절을 보냈으나, 한일병합 전후에 증조부가

의병에 가담한 까닭에 가족이 모두 고향을 등지고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외사리로 이주했다. 한학자 집안에서 태어난 장우성은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한학 공부를 시작했으나 신학문을 배우고자 경성으로 올라왔고 우연한 기회에 서화 분야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1930년 김은호의 화숙(畫塾)인 낙청헌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동양화를 배우면서 육교 한어학원에서 한자를, 김돈희(金敦熙, 1871~1937) 서숙(書塾)인 상서회(尙書會)에서 서예도 익혔다. 이미 20대에 시서화를 두루 섭렵하게 된 것이다.

장우성은 낙청헌에서 김은호에게 섬세하고 우아하며 화사한 화풍의 여성 인물화를 학습하며 조선미전에 참여했다. 그 결과 20회(1941) 대회부터 연속 4회 특선을 수상했다. 해방 이후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교수로 부임하여 근원 김용준(近園 金瑒俊, 1904~1967)과 함께 ‘신문인화’를 모색했다. 신문인화란 동아시아 문인화의 사의성을 현대적 감성에 맞게 응용한 창작물이다. 해방 이후 발화된 왜색 극복, 민족성 수립, 모더니즘의 실현이라는 명제를 실천하고자 사군자 류의 제재를 채색이 아닌 수묵 담채로 간략하게 표현한 회화를 뜻한다. 1961년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사임한 장우성은 1963년 미국무성 초청으로 미국에 건너가 3년 동안 체류했다. 그리고 1967년부터 매난국죽을 포함한 문인화 화목에 집중했다. 그가 신문인화를 시작한 1960년대 후반은 동아시아 문인화의 계승과 변모 과정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기존의 방법론만 답습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우성은 전통 제재를 새롭게 해석한 문인화를 발표하여 동양화단에 신선한 방법론을 제시했다.⁴⁾

이번 전시에 출품된 장우성 회화의 대다수는 신문인화 범주에 속한다. 장우성이 가장 많이 그린 사군자화는 바로 매화도이다. 매화는 이른 봄의 추위를 무릅쓰고 눈 속에서도 제일 먼저 봉우리를 터뜨리기 때문에 봄의 전령, 순결의 메타포를 상징하는 꽃이었다. 장우성은 초창기에 꽃잎에 먹 점을 찍지 않고 연지를 선염한 홍매를 많이 그렸다. 1956년 작 〈홍백매〉에서도 세로로 긴 화폭에 농묵, 비백의

필선으로 여러 개의 매화 가지를 구획하고 연지로 꽃잎을 표현했다. 이러한 양식은 중국 청대 서화가인 오창석(吳昌碩, 1844~1927)이 자주 구사한 철선묘를 연상시킨다. 장우성이 오창석 서화의 영향을 받았음은 다른 출품작인 〈파초와 앵무새〉(1967)에서도 확인된다. 그가 이 그림 관서에 ‘學缶翁意’, 즉 “부옹(오창석의 호)의 뜻을 배우다”라고 표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우성은 오창석보다 가늘고 일정한 두께의 선을 올곧게 구사하여 제화시에 적합한 “쇠를 부어 주조한 것 같은 꼬장한 줄기(幹老生鐵鑄)”를 시각화했다.

다음은 학 그림이다. 학은 순우리말로 ‘두루미’라 불리는 몸집이 큰 조류이다. 시베리아 우수리 지방과 중국 북동부, 일본 홋카이도 등지에 서식하며 10월 하순부터 이듬해 3월 까지 한반도 중북부 지역으로 날아와 월동하는 철새이기도 하다. 학은 청초하고 기품 있는 자태를 지니고 있어 고대부터 신성한 영조(靈鳥)로 인식되었다. 또한 아름다운 외관뿐만 아니라 남다른 생태적 특성이 세간에 호감을 샀다. 평생 일부일처를 고집하는 점, 서서 지는 습성, 춤을 추는 듯한 번식기의 구애 행동, 멀리까지 퍼져 나가는 울음소리 등이 예술가의 영감을 자극한 것이다. 이번 전시 출품작인 〈송학도〉처럼 학 두 마리가 함께 있는 도상은 평생 의리를 지키며 사랑을 나누는 부부애를 상징한다. 게다가 소나무와 해와 공존하는 학 두 마리는 부부의 해로를 기원하는 ‘송학동춘(松鶴同春)’, ‘송학장춘(松鶴長春)’, ‘학수송령(鶴壽松齡)’의 의미를 간직한다.

94세까지 장수한 장우성은 인물화, 산수화, 화조 영묘화 등의 동아시아 전통 제재를 두루 섭렵한 작가였다. 어린 시절부터 가학으로 익힌 한학이 그를 자연스럽게 문인화의 세계를 이끌었고 해방 이후 발화된 모더니즘이 남다른 신문인화 개척의 원동력이 되었다.

3.蒼雲(蒼暈) 이열모(李烈模, 1933~2016)

창운 이열모는 1933년 충북 보은에서 출생했다. 산 깊고 물 맑은 두메산골에서 성장한 그는 11세에 부모를

3) 박승무 생애와 작품 세계에 관한 전반적인 고찰은 황효순, 『심향 박승무 평전, 소요, 그 깊고 그윽한 향기』(심향선양위원회, 2009) 참조.

4) 장우성의 사군자화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는 이선유, 『전통적 소재의 현대적 변용: 월전 장우성의 사군자화』,

『月田, 전통을 넘어_제1,2회 월전학술포럼 논문집』(이천시립월전미술관, 2014) 참조.

따라 인천으로 올라와 초, 중등학교를 다녔다. 이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에 입학하여 동양화와 서양화를 두루 공부하다가 장우성과 노수현 문하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기로 결심했다. 이열모는 군 복무를 마친 1959년 처음으로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이하 국전)에 출품했다. 초창기 국전 출품작은 모두 인물화였다. 그러다가 대학 졸업 후 중고등학교 미술 교사를 하면서 틈틈이 야외에 나가 주변 경관을 스케치하며 점차 산수화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후 이열모는 문교부에서 시행하는 유학생 선발 시험에 합격하여 3년 동안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과 하워드 대학에서 연수하게 되었다. 이 기간에 자유롭게 개방적인 미국 대학의 수업을 경험했고 많은 미술관을 다니며 각국 거장의 작품을 직접 감상했다.

이열모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할 무렵, 동양화단에서는 새로운 미술 사조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발화되고 있었다. 당시 국내 미술계에서 확산된 앵포르멜, 큐비즘 등의 서구 미술이 '동양화의 현대성' 담론의 해법으로 제시된 것이다. 또한 1960년에 결성된 묵림회(墨林會)가 지필묵을 활용한 수묵 추상을 활발히 시도하고 있었다. 널리 알려졌듯이 묵림회는 1960년 산정 서세욱(徐世鈺, 1929~2020)이 당시 서울대학교에서 동양화를 전공한 신진작가들과 함께 동양화의 새로운 조형성을 실험하려는 모임이었다.⁵⁾ 묵림회 구성원은 채색화를 왜색으로 간주한 시기에 동아시아 수묵 전통을 계승하되 동양화의 현대성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했다.

세간에서는 미국에서 동서양의 미술과 폭넓은 교육 방식을 두루 섭렵한 이열모가 동양화단의 변동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열모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추상 자체를 거부했다. 예컨대, 1963년 『세대』라는 잡지에 「추상은 예술이 아니다」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구상 회화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현대미술의 최고 흥미가 예술 외적인 것, 즉 순수 기하학, 근대 공간, 무의식에 있는데 이것을 예술이라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추상 예술이 자연을 무시하고 인간적 요소를 파괴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회화 창작의 중요한 요소인 '묘사'를 부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추상은 “꿈속과 같은 불확실한 세계를 즐기고 지각보다도 표상을 사랑하는 취미 예술이고, 자연이나 인간을 배려하지 않으며 주제가 없다.”고 부언했다.⁶⁾ 장우성의 제자답게 구체적인 사물의 재현과 그 함의가 중요하다는 신념에서 비롯된 발언이다.

이열모는 경희대학교 교수에 부임하여 본격적으로 산수풍경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1970년대부터 사찰, 기와집을 주요 제재로 삼고 주변의 산천을 극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을 선보였다. 수권(手卷), 축(軸)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의 회화 형식이 아닌, 캔버스 비례의 화폭에 한 가지 앵글로 아름다운 산천을 포착하고 섬세하게 묘사하여 카메라로 찍은 풍경 사진과 같은 회화를 제작했다. 또한 이열모는 서양화의 구성법을 적극 활용했으나 동양 미학에 제시된 방법론도 계승했다. 예컨대 북송대 광희(郭熙, 1020?~1090)가 정의한 삼원법(三遠法)의 평원(平遠), 심원(深遠), 고원(高遠)을 산수화에 실현했다.

이번 전시에는 구체적인 장소를 그린 실경산수인 〈향원정〉과 〈두타산 용추〉가 출품되었다. 〈향원정〉에서는 우뚝 솟은 나무 서너 그루를 전면에 배치한 후, 그 뒤편에 향원정 주변 경치와 멀리 보이는 산을 작게 표현하여 화면에 깊이감을 부여했다. 〈두타산 용추〉에서는 두타산에 위치한 용 모양의 폭포를 수묵담채로 형상화했다. 빛으로 파생되는 그림자를 표현하여 바위 절벽의 육중한 괴량감을 드러냈다. 두 작품 모두 작가가 임의로 경물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음영을 반영했다. 이처럼 이열모는 농촌 사람의 삶의 터전인 향토적인 풍경이나 이름난 명승명소를 현장에서 직접 사색한 다음 수묵 담채로 재현한 실경산수화를 많이 남겼다.

4. 이석(以石) 임송희(林頌羲, 1938~2022)

이석 임송희는 1938년 충북 증평에서 태어났다. 유소년기를 고향에서 성장하여 증평공업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56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에 입학한 그는 당시 동양화

전공 교수였던 심경(心耕) 박세원(朴世元, 1922~1999)에게 마음 '心'자를 물려받아 심정(心井)이라는 호를 사용했다. 임송희는 1962년 학생 신분으로 11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이하 국전)에서 입선을 차지하며 작가로서의 행보를 시작했다.

1963년 대학 졸업 후 묵림회 전시에 가담했다. 그러나 묵림회가 1964년 해체되자 임송희도 더 이상 활동하지 못했다. 또한 임송희는 1967년 봄에 결성된 《한국화회》에도 참여했다. 《한국화회》는 김원세(金元世), 이규선(李圭鮮, 1938~2014), 장상선(張相宣), 정치환(鄭致煥), 정탁영(鄭卓永, 1937~2012), 정상원(鄭相元), 송영방(宋榮邦, 1936~2022), 신영상(辛永常, 1935~2020) 등 서울대학교 출신의 젊은 작가들이 모여 지필묵의 참신한 표현과 신선한 회화 내용을 모색한 그룹전이다.

임송희는 평생 여러 제재를 다양하게 소화했다. 먼저 그는 1960년대 초반 국전에 인물화를 출품했다. 11회, 12회, 14회, 18회 국전에 〈현장〉, 〈석양〉, 〈소사벌 여인들〉, 〈하일〉이라는 인물화로 입상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의 인물화를 다작한 까닭은 정부가 국민의 단합과 국토 건설의 토대인 건전한 노동과 민족중흥의 이미지를 출품작 소재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임송희도 당시 국전의 입상 경향을 고려하여 도시나 농촌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를 모델로 삼아 1960년대에 한창 진행된 건설과 노동의 현장을 사실적으로 재현했다.

임송희는 1990년대부터 여성인물화를 본격적으로 그렸다. 특히 '한복 입은 미인상'을 제작하며 전통 복식에 관한 남다른 관심을 표명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고궁 축제〉는 흥색과 청색의 대례복을 갖추고 춤을 추는 무희를 그린 인물화이다. 장우성의 작품을 감상한 후 제작하게 된 〈고궁 축제〉는 원래 분리된 화폭에 각각의 무희를 그렸다가 나중에 이어 붙인 작품이다. 임송희는 한복을 철저히 고증하여 머리 장식, 노리개, 문양을 정확하게 묘사했다. 전통 복식의 아름다움과 장신구의

정교함, 원색이면서도 서로 어울리는 색채의 조합을 널리 알리려 한 것이다. 반면, 의례복을 착용한 모델을 서양인의 신체 비례와 이목구비로 재현했다. 즉 의례복이라는 고전적 소재를 선택하여 현대인이 선호하는 서구적 외모의 불특정 미인상을 연출했다. 전통적 모티프와 서구적 양식이 혼재한 다문화적 시각성을 드러낸 셈이다.

임송희는 산수화도 다양하게 그렸다. 파필과 발묵의 기법을 활용하여 기본적인 산수의 형상만을 표현하거나 몸소 명승 명소를 답사하며 눈과 마음으로 체렴한 자연을 화폭에 담았다. 전자는 산수풍경을 마음에 담아 그 심상을 조형화한 사의 산수이며, 후자는 치밀하고 정교하며 섬세한 붓질로 실제 경관을 그대로 재현한 실경산수이다. 이번 전시에는 후자에 속하는 〈장가계〉가 출품되었다. 2004년 작 〈장가계〉는 중국 호남성 지급시에 위치한 명승지를 그린 실경산수화이다. 중경을 구름, 안개로 처리한 채 전경과 후경에 병풍처럼 드리운 기이한 암벽만 꼼꼼하고 세밀하게 묘사한 후 암적색이나 황록색의 선염으로 마무리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아름다운 절경이 담묵과 여백의 안개, 구름 덕분에 환상적인 풍경으로 연출되었다. 이렇듯 임송희는 윤필과 갈필, 채색과 수묵을 자유자재로 구사할뿐더러, 구상과 추상의 경계도 넘나들며 각양각색의 산수화를 창작했다.

5) 묵림회에 관한 논고는 박과광, 「동양화단의 추상연구-묵림회를 중심으로」(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김철효, 「묵림회 화가들이 말하는 묵림회」,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2(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11) 참조.

6) 이열모, 「추상은 예술이 아니다」, 『세대』, 1963. 11.

III. 충북과 인연을 맺은 한국화 작가

1. 운보(雲甫) 김기창(金基昶, 1913~2001)

운보 김기창은 1913년 서울 운니동에서 당시 총독부 토지관리국 직원이던 아버지 김승환과 어머니 한윤명(1895~1932) 사이에서 8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을 잠시 충남 공주에서 보낸 그는 8세인 승동보통학교 2학년에 장티푸스로 인한 고열로 청각을 상실한 후 장애가 생겼다. 당시 세브란스 병원 간호부였던 모친은 청각 장애자 아들에게 손수 어학과 수학을 가르쳤다. 그리고 아들의 남다른 그림 솜씨를 파악하여 진명여고보 동기인 나혜석(羅蕙錫, 1896~1948)을 찾아가 미술 선생으로 이당 김은호를 추천받았다. 그리하여 17세 소년 김기창은 김은호의 화숙인 낙정현에서 서화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나 낙정현에서 수학한 지 2년 후 그의 전부였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가장 든든한 후원자를 잃은 그는 더욱 그림에 정진했다. 당시 유행한 일본의 신고전주의 화풍을 수용하여 조선적 감성이 담긴 미인도나 자연의 묘묘한 정취를 담은 화조도를 제작했다. 그리하여 조선미전 16회(1937)에서는 <고담(古談)>으로 최고상인 창덕궁상을, 17회(1938)에서는 <하일(夏日)>로 총독상을 수상했다. 이 시기에는 어머니가 지어 준 아호인 ‘운포(雲圃)’를 썼으나, 해방 직후 일제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로 □를 떼어버린 ‘운보(雲甫)’로 바꿨다.

김기창의 인생을 바꾼 또 다른 인물은 부인 우향(雨鄕) 박래현(朴來賢, 1920~1976)이다. 박래현은 1920년 평안남도 진안포 비석리에서 대 지주인 아버지 박명수(朴命洙)와 어머니 조기국(趙基菊) 사이에서 2남 1녀 중 맏딸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을 군산에서 보낸 그는 영화감독과 의사를 꿈꾸며 홀로 상경하여 1936년 관립 여자사범 학교에 진학했다. 그리고 이 학교 미술 교사인 에구치 게이시로(江口敬四郎, 1907~?)의 추천으로 일본 유학을 결심했다. 1939년 일본으로 떠나 1940년 도쿄 여자미술전문학교 사범과 일본화부에 입학했다. 한 학기 일찍 졸업한 박래현은 곧바로 귀국하지

않고 이와부치 호가(岩淵芳華, 1901~1956)의 화실을 다니며 일본 관전인 제국미술전람회에 출품했다. 그리고 22회(1943) 조선미전에서 <단장>으로 총독부상을 수상했다. 박래현은 조선미전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잠시 경성에 왔고 운명처럼 평생의 반려자인 김기창을 처음 만났다.

당시 30세 청년이었던 김기창은 모친처럼 재능 있는 박래현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 두 사람은 필담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우며 장래를 약속했으나 박래현 부친이 두 사람의 결혼을 심하게 반대했다. 결국 1947년 초 두 사람은 박래현 부모의 참석 없이 조출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다. 김기창은 부인 이름의 한자를 ‘來’에서 ‘暎’로 바꾸었고 ‘雨鄕’이라는 호도 직접 지어주었다. 이후 박래현은 1948년에 개봉한 <사랑의 서광>이라는 영화를 보고 감명을 받아 남편에게 수화를 가르쳐 주기로 결심했다.⁷⁾

김기창과 박래현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군산으로 피난을 갔다. 여전히 장인은 김기창을 외면했으나 가난한 화가 부부의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 두 사람은 군산에서 미군들의 초상화를 그리며 생계를 유지했다. 그리고 동양화의 현대성을 이룩하고자 여러 방법론을 모색했다. 동양화단에서 왜색 탈피, 현대성 논의와 함께 수묵 추상이 부각되자 채색화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큐비즘의 양식을 도입하여 구상과 비구상이 공존하는 수묵채색화를 선보였다. 그리고 1957년 백양회(白陽會)를 결성했다. 김기창은 백양회 회원전과 신진작가 공모전을 정기적으로 열었고 민간 단체로는 처음으로 해외 순회전도 진행했다. <백양회> 구성원은 각자의 개성과 작품의 특성을 서로 존중하면서 전통 회화의 현대적인 면모가 다양하게 실험되도록 노력했다. 또한 김기창은 1960년대부터 상파울루 비엔날레를 비롯한 해외 미술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필촉 기술과 예리한 감각”을 살려 “부비고 닦고 칠하여 ‘마치엘’의 도첩(塗貼)을 피하는” 추상을 발표했다.

1976년 부인 박래현이 세상을 떠난 뒤 김기창의 화업은 변화했다. 반추상에 가까운 시정 풍경이나 친진무구한 동심을 담아낸 바보 산수를 시작한 것이다. ‘너무나 꾸밈없고 순진하여

바보’라는 이름을 붙였고, “주제는 낡고 묵은 것이지만 새로운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창조할 수 있다.”라고 이를 설명했다. 또한 1979년 충북 청원군에 전통 한옥으로 <운보의 집>을 짓기로 결정하며 충북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한국농아복지회를 조직하며 이 단체의 초대 회장으로 역임했다. 이렇듯 김기창은 선천적 감각과 탁월한 기량으로 폭넓은 장르의 회화를 제작한 작가이자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근하게 감싸 안은 후원가였다.

2. 남정(藍丁) 박노수(朴魯壽, 1927~2013)

남정 박노수는 1927년 충남 연기군에서 아버지 박상래(朴祥來)와 어머니 김봉금(金鳳今)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5세의 어린 나이에 조모 곽귀수(郭貴秀)에게 천자문을 배웠고 부친에게 서예를 익혔다. 충남 공주에서 정안공립 보통학교를 다녔으며 다시 충북 청주로 올라와서 1945년 5년제인 청주상업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바로 동경 유학을 가고 싶었으나, 태평양전쟁 말기인 탓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서울 누하동에 위치한 청진 이상범의 개인 사숙인 청전화숙(靑田畫塾)에서 처음 지필묵을 접했다. 그의 나이 18세 때의 일이다.

박노수는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제1회화과에 입학하면서 미술학도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당시 회화과에서는 김용준과 장우성이 소묘와 동양화 실기를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박노수는 22세인 1949년부터 54세인 1981년까지 한 번도 빠짐 없이 매년 국전에 출품했다. 2회(1953)부터 두각을 나타내어 국무총리상을 비롯한 대통령상, 특선을 연이어 수상했고, 30세인 6회(1957)부터 추천작가를 비롯한 심사위원,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니 국전과 더불어 한국화가로 성장한 셈이다. 장년 박노수는 대학교수로서 제자를 양성했고 국내외 전시에 적극 참여했을 뿐더러 정부의 국책 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명실상부한 한국화가의 주역으로 입지를 확고히 했다.

박노수는 산간벽지라 불릴만한 평범한 시골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성장했다. 봄날의 양광(陽光), 따사로운 산과 들, 어지렁이 뽀꾸기 소리, 과실이 무르익은 가을, 진홍색 단풍이 어우러진 산과 들, 맑은 물이 흐르는 산간의 계류가 어린 시절의 친한 벗이었다. 이러한 아름다운 추억은 그의 창작에 훌륭한 자양분이 되었다. 이에 박노수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산수풍경화를 그렸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색상인 군청을 도입했다.

박노수에게 군청은 어떤 의미일까? 박노수는 <소년>(1972)에 왕유(王維, 699~759)의 <원의랑 노상과 함께 처사 최홍종의 숲속 정자에 들르다(興盧員外象過崔處士興宗林亭)>의 1,2행인 “나무 그늘 깊어서 온 이웃 덮으려는 듯, 푸른 이끼 날로 더해 티끌 먼지 없구나(綠樹重陰蓋四隣 靑苔日厚自無塵)”를 화제로 적었다. 이 시구에 따르면 박노수가 사랑한 군청은 세상의 더러움을 감추고 없애는 ‘푸른 이끼’이다. 이번 전시 출품작인 <고사>에서도 시물의 생략, 형태의 단순화, 그리고 특유의 군청을 볼 수 있다. 명도와 채도가 매우 높아 맑고 투명한 느낌을 선사하는 색상들은 함축적 주제에 장식적인 효과를 더했고, 화선지의 하얀 여백과 대비를 이룬다.

박노수의 산수풍경화에는 먼 산을 바라보는 좌상의 소년, 일엽편주 위에 노를 들고 서 있는 소년, 나무 밑에 머문 백마와 소년이 등장한다. 소년의 포즈나 동세는 다르지만 대부분 흰옷을 입었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1974년 작 <소년>에서는 하단의 바위가 담필과 호분으로 밝게, 배경이 진한 남색으로 어둡게 채색되었다. 소년은 머리카락이 단정하고 짧으며, 목이 길고, 등이 약간 굽었다. 쭈그리고 앉아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어 차분하지만 외롭고 쓸쓸해 보인다. 박노수는 “동양의 산수는 작가가 그곳에서 노닐고자 그린다고 한다. 그래서 인지 화중 인물은 작가 자신인 경우를 느낄 때가 많다. 동양인은 이렇게 자연을 사랑하고 그 일부가 되려고 한다.”라고 고백한 바 있다. 그렇다면 그림에 등장하는 소년은 유년기를 산촌에서 보낸 작가의 자화상일지도 모르겠다.⁸⁾ 이렇듯 박노수는 전통 화법을 근간으로 깔꿈하면서 신선한 서구적 감각을 도입했다. 점차 사물을 변형하고 근대적 공간구성에서 탈피하여 화면을 단순화, 평면화하면서 독자적인 개성을 구축했다.

7) 강민기, 「자유로운 조형 정신의 구현: 박래현의 인물화」, 『삼중동역자, 박래현』(국립현대미술관, 2021), 28쪽.

8) 남정 박노수, 「산수화, 동양철학 위에 펼쳐지는 하나의 창조된 자연」, 『화필인생』(컬처북스, 2010), 88쪽.

3. 소정(素丁) 황창배(黃昌培, 1947~2001)

황창배는 1947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한의사인 선친에게 한학과 고전을 배웠으나 재주 많은 어머니의 예술적 재능을 물려받아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중고 시절 6년간 미술반에서 활동했으며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에 입학하여 정규 미술교육에 입문했다. 대학원 진학 후 본격적인 작가의 길을 걸으며 철농(鐵農) 이기우(李基雨, 1921~1993)에게 전각과 서예를, 장우성에게 초상화 기법을 배웠다. 20대의 황창배가 작가로서 입지를 굳힌 계기는 국전 수상이다. 황창배는 서울대학교 회화과 재학 중인 1968년 17회 대회부터 출품을 시작하여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한 마지막 대회(30회)까지 국전에 꾸준히 참여하며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다.

황창배는 여러 대학에서 교수직도 역임했다. 그러다가 1990년 전업 작가로 전향하고 충북 증평에 작업실을 마련했다. 그리고 2001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곳에서 창작을 이어갔다. 증평 작업실에서 황창배가 몰두한 것은 지필묵 이외의 재료 탐구였다. 물론 한국화가의 물성 실험은 1960년대부터 존재했다. 에컨대 박래현은 1960년대 초반 청동기의 울퉁불퉁한 재질을 표현하기 위해 양초, 크레올, 테레빈(terebene) 등을 먹이나 아교와 섞어 사용했다. 안상철(安相喆, 1927~1993)은 한지에 먹물을 떨어뜨리고 돌, 나무, 화판 등을 붙이는 콜라주를 시도했다. 안동숙(安東淑, 1922~2016)은 1960년대 후반부터 관화, 페인팅, 콜라주가 혼성된 방식을 시도했다.

황창배도 대학원 졸업 후, 갯물에 마직을 삶아 일록을 형상화한 연무(煙霧) 기법의 비구상을 착수했고 그 실험의 결과물인 〈비(秘)〉 시리즈로 국전에서 대통령상 등을 받았다. 그러나 평면과 입체, 동양화와 서양화의 경계 확장은 1988년 12월부터 3개월 동안 참여한 Artists Colony (NY Foundation for the Arts 주관) 이후 본격적으로 착수된다. 그리고 1989년부터 화선지에 전통 재료가 아닌 아크릴이나 과슈아를 바르거나, 한지 대신 캔버스를 바탕 재료로 선택했다. 이러한 체험이 증평 시기로 이어져서 다양한 실험을 감행하게 된 것이다.

아크릴 물감을 사용한 붓질에서 강조된 것은 비백(飛白)이었다. 비백이란 붓질의 속도가 빠르고 물기가 건조하여 바탕에 붓질이 지나갔음에도 비어 있는 공백을 뜻한다. 황창배는 서양의 브러쉬로 동아시아의 오랜 회화 양식인 비백을 실현했다. 나아가 한 번의 붓질로 여러 색이 공존하는 선을 고안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양 회화의 선은 드로잉이나 입체감 표현을 기초 작업에 많이 활용되었다. 그러나 황창배는 모필의 중봉, 농담의 속성을 적극 도입하여 색상의 변화를 필선으로 표출했다. 게다가 노끈 등의 다양한 오브제를 선택하여 더욱 자유분방한 표현을 시도했다.

황창배는 1980년대 중반부터 작품 제목을 무제라 명명했다. 그에게 구체적인 작품명은 필요 없었다. 이번 전시 출품작인 〈무제〉(1997)는 그가 건강의 이상 징후를 느낄 무렵 제작된 회화이다. 황창배는 가로 5m가 넘는 큰 화면에 울긋불긋한 꽃상여를 표현했다. 상여를 맨 채 행진하는 군상을 한지 바탕으로 남겨 마치 실루엣처럼 연출했다. 소재(素色)로 드러난 사람들의 형상은 주인공인 꽃상여를 부각하기 위한 조연이자, 화면에 움직임을 부여하는 보이지 않는 주연이다. 일반적인 ‘죽음’의 정서는 ‘슬픔’일 것이다. 그래서 죽음을 표현한 시각물은 어둡고 칙칙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황창배의 죽음은 달랐다. 그는 죽음을 다른 세상으로 가는 축제로 여긴 듯, 환하고 밝은 분홍, 빨강, 노랑을 채색하여 죽음을 기쁨의 행사로 승화했다.

이렇듯 황창배는 언제나 서예와 전각으로 연마한 전통 필묵법을 근간으로 다양한 물성을 사용했다. 그리고 이러한 창작은 증평 작업실에서 결실을 맺었다. 화면을 종횡무진 가로지르는 파격적인 선과 다채로운 물상에 펼쳐진 먹과 색에서 형호가 언급한 “법칙에 의거하지만, 운용에 따라 변통하고”, “문체가 자연스러워 마치 붓으로 그리지 않는” 상태가 연상된다. 힘찬 장봉과 섬세한 묘사, 농담이 풍부한 먹과 화려한 색, 과감한 생략과 강조의 문법. 이것이 황창배가 이룩한 창작이 아닐까한다.

IV. 닫는 글

한국화란 종이(비단), 모필, 먹을 기본으로 채색 안료를 더해 완성된 그림을 일컫는다. 1970년대까지 이러한 그림을 동양화라고 불렀다. 20세기 한국화는 격변과 진통의 한국 현대사와 동행하며 진화했다. 조선시대까지 계승된 동아시아의 오랜 화론과 화법을 간직하되 일본을 통해, 혹은 서구에서 직접 수입된 새로운 양식을 이해하고자 늘 고민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7인도 파란만장한 한반도의 역사를 고스란히 체험하며 각고의 노력으로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펼친 인물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회화를 감상하면 20세기 한국화단이 발화한 명제와 그 해법이 발견된다. 전통의 계승과 신화법의 적용을 이룩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화법을 창안하고자 끊임없이 탐구한 작가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7인의 일생과 작품 세계를 재해석하고 이번 전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The Legacy of Korean Painting in Chungbuk

Song Hee-kyung (Director of Gyeongju Jeong Seon Art Museum)

Table of Contents

- I. Introduction
- II. Korean painting artists born in Chungbuk
- III. Korean painting artists with ties to Chungbuk
- IV. Conclusion

I. Introduction

Chungcheongbuk-do Province (忠清北道, hereafter Chungbuk), located in the central area of Korea, is the only inland province that does not face the sea. Except for the flatlands of the Geumgang River basin, the province is mostly mountainous, so it is pretty cold in winter and cool in summer, with very few tropical nights. Since the epoch of the Three Kingdoms, this region has functioned as a transportation hub connecting different parts of the inland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Gyeripyeong Pass and Jungnyeong Pass in the Mt. Sobaeksan area opened for exchanges with Yeongnam, the southeastern region of Korea, and connections to up until Gangwon-do Province through the waterways of Han River. From ancient times to the modern era, Chungbuk art was mainly centered on Buddhist culture. The main features were primarily famous Buddhist temples, such as Beopjusa Temple, and other pieces pertaining to the temples, including wooden architecture, Buddhist statues, and pagodas.¹⁾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area around Danyang, Cheongpung, Yeongchun, and Jecheon was called the Sagun (Four Counties) Landscape (四郡山水) and became renowned subjects for artistic creation that have been actively explored. As artists traveled through the magnificent views of the Sagun (Four Counties) Landscape, they recorded the beautiful nature embracing the mysterious rocks, stone walls, and abundant water in their writing and paintings.²⁾

Chungbuk, with such unique scenery and artistic spirit, was a cradle for creativity. This essay examines the lives and works of seven artists presented at the Chungbuk Gallery's special exhibition, The Legacy of Korean Painting in Chungbuk. This list of seven Korean painting artists comprises four artists who were born and raised in Chungbuk: Simhyang (深香) Park Seung-mu (朴勝武, 1893~1980), Woljeon (月田) Jang Woo-sung (張遇聖, 1912~2005), Changwoon (蒼暈) Lee Yul-mo (李烈模, 1933~2016), and Iseok (以石) Lim Song-hee (林頌羲, 1938~2022); as well as three artists who have ties to Chungbuk: Woonbo (雲甫) Kim Ki-chang (金基昶, 1913~2001), Namjeong (藍丁) Pak No-soo (朴魯壽, 1927~2013), and Sojeong (素丁) Hwang Chang-bae (黃昌培, 1947~2001). I expect that this article will contribute to reconfirming Chungbuk's artistic spirit and shed light on the life and artistic world of Korean painting artists who represent that heritage.

1) For discussions on the history of Buddhist art in the Chungcheongbuk-do Province, see Kim Chun-sil, "Chungbuk Studies and the History of Art," in Chungbuk Studies, vol. 1 (Chungbuk Research Institute, 1999).

2) For a general discussion of the Sagun (Four Counties) Landscape paintings of the late Joseon Dynasty, see Lee Soon-mi, "A Study of the Landscape paintings of Sagun of Chungcheong Province in the Late Joseon Dynasty" in The Art History Journal, vol. 27 (Association of Buddhist Art of Korea, 2006).

II. Korean painting artists born in Chungbuk

1. Simhyang(深香) Park Seung-mu (朴勝武, 1893~1980)

Simhyang Park Seung-mu was born in 1893 in Gunbuk-myeon, Okcheon-gun, Chungbuk. When Park Gyeong-yang, who passed the state examination and served as a vice royal secretary in the late Joseon Dynasty, lost his son, he adopted Park Seung-mu, the son of Park Gyeong-yang's younger brother Park Do-yang. Park Seung-mu attended Changmyeong Elementary School (currently Jukhyang Elementary School) in Okcheon as a child. After marrying a lady from Eunjin Song Clan, as arranged by his family, he moved to Seoul at his father's recommendation, where he learned English, judo, and Japanese at the YMCA. One of his friends who learned judo together was Simmyo (心畝) Kim Chang-whan (金彰桓, 1895~?), who was then learning painting under Sorim (小琳) Cho Seok-jin (趙錫晉, 1853~1920). The paintings of the disciples of Sorim inspired Park Seung-mu, who would draw in secret without his father knowing.³⁾

When his father eventually learned the secret, he visited Cho Seok-jin to request that Park Seung-mu learn painting and calligraphy from him. Park Seung-mu thus began studying painting at Cho Seok-jin's home with the master's grandson, Cho Gwang-jun (趙廣濬, 1890~?), another grandson, Byeon Gwan-sik (卞寬植, 1899~1976), and Kim Chang-whan. Then, in 1913, he entered the Seohwamisulhoe (Association of Calligraphy and Painting) as a member of the third class and graduated three years later in 1916. The following year, he moved to Shanghai, China. However, as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intensified the surveillance of Koreans in China, he was deported by the Japanese police in 1920 and placed under a restricted

movement order at home under the surveillance of the Okcheon Police Station for two years. Then, he came to Seoul in 1922. Park Seung-mu, who later became a member of the Seohwahyeophoe (Society of Painters and Calligraphers), stood out by submitting "Cloudy Moonlight Night" at the 2nd Joseon Art Exhibition organized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He reinforced his presence as an artist by attempting to create an innovative Oriental painting based on the painting and calligraphy format. In May 1940, he was invited to the Ten Masters Landscape Painting Exhibition held at the Joseon Art Museum, along with Lee Sang-beom (李象範, 1897~1972), Byeon Gwan-sik (卞寬植, 1899~1976), No Soo-hyeon (盧壽鉉, 1899~1978), Lee Yong-woo (李用雨, 1902~1953), Heo Baek-ryeon (許百鍊, 1891~1977), Kim Eun-ho (金殷鎬, 1892~1979), Lee Han-bok (李漢福, 1897~1940), Choi Woo-seok (崔禹錫, 1899~1965), and Ko Hui-dong (高義東, 1886~1965).

When we take a look at the history of the evolution of Park Seung-mu's art name, first, his uncle gave him an art name, Soha (小霞), after the first letter of his own nickname, Hajeong (霞亭). In the late 1910s, he used Gyunjeon (筠田), then Soha again until the mid-1920s, and from 1927 to the early 1940s, he chose Simhyang (心香), which was granted to him by Oh Se-chang (吳世昌, 1864~1953). From 1935, he used both Simhyang (心香, meaning 'scent of the heart') and Simhyang (深香, meaning 'profound scent') together, but ever since the late 1940s, the latter was used exclusively. Park Seung-mu's works encompassed a broad scope of subjects and matters, including landscape paintings, four gracious plants paintings, and flower-and-bird paintings. He, who particularly excelled in landscape painting, learned in the beginning from his teacher how to create landscape paintings by imitating old works. However, later, he began to sketch directly from nature, which he had experienced on the spot, and to return to classical landscapes since his middle age.

Particularly fond of snow-covered mountains and streams, Park Seung-mu has left many snowy landscapes. Two of his snowy landscapes were also presented in this exhibition. "Winter Landscape (溪村暮雪)," painted in 1964, depicts a cozy river village with a thick layer of snow. At the bottom of the painting is a small hill; in the middle are bare trees and houses in a row, and at the top is a distant mountain. Park Seung-mu applied oehunbeop, a technique of coloring background with light-color ink, to express the snow-covered mountains and streams and outlined all the objects, which resulted in neat, graceful, and clear winter landscapes.

Park Seung-mu had a period when he was once again recognized as a senior master in Oriental painting communities of Korea in the early 1970s. It began with the Six Eastern Painters Exhibition, held in 1971 at the Seoul Press Center Gallery on Taepyeong-ro, Seoul. Organized to commemorate the 20th anniversary of Seoul Shinmun, the exhibition brought together works by Heo Baek-ryeon, Kim Eun-ho, Park Seung-mu, Lee Sang-beom, No Soo-hyeon, and Byeon Gwan-sik, all of whom played critical roles in the history of modern Korean painting. Through this exhibition as an opportunity, the six senior masters were grouped into the 'Yukdaega (Six Masters),' who became the everlasting teachers of Oriental painting circles of Korea.

2. Woljeon (月田) Jang Woo-soung (張遇聖, 1912~2005)

Woljeon Jang Woo-soung was born in May 1912 in Chungju, Chungbuk. He spent his early childhood briefly in Danyang, but since his great-grandfather joined the Anti-Japanese Righteous Army around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his entire family left their hometown and moved to Oesa-ri, Heungcheon-

myeon, Yeosu-gun, Gyeonggi-do Province. Born from a family of scholars of the Chinese classics, Jang Woo-soung naturally began studying the Chinese classics as a child. However, he came to Gyeongseong [Seoul] to study modern knowledge, and he was attracted to painting and calligraphy by chance. In 1930, he entered Nakcheongheon, an art school run by Kim Eun-ho, where he learned full-fledged Oriental painting while also learning Chinese characters at Yukgyo Chinese Language School and calligraphy at Sangseohoe, a calligraphy school run by Kim Don-hee (金敦熙, 1871~1937). Already in his twenties, Jang Woo-soung experienced all over poetry, calligraphy, and painting.

Jang Woo-soung learned from Kim Eun-ho at Nakcheongheon female figure paintings in a delicate, elegant, and colorful style and submitted entries in the Joseon Art Exhibition. As a result, he won special selections four times in a row from the 20th edition (1941) of the event.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at the young age of mid-30s, he became a professor of the Art Department, College of Fine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where he worked with Geunwon (近園) Kim Yong-Jun (金瑑俊, 1904~1967) to explore 'new literati painting,' which is a creation that applied the 'freehand brushwork spirit (寫意性)' of East Asian literati painting in an adapted way to modern sensibilities. It refers to a painting that concisely expresses the subject matters, such as four gracious plants in ink and light-colored paintings rather than colored paintings, in order to practice the proposition of overcoming the Japanese style, establishing national identity, and realizing modernism, which was pronounced after Liberation. After resigning from his position as a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61, Jang Woo-soung went to the United States in 1963 at the invitation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 where he stayed for three years. From 1967, he focused on the subject matter of literati painting, including plum, orchid, chrysanthemum,

and bamboo. The late 1960s, when he started his new literati painting, was a period when the process of succession and transformation of East Asian literati painting was undergoing a stagnation in the existing methodologies with no creative breakthroughs. In this situation, Jang Woo-soung presented literati painting with a new interpretation of traditional subject matters, suggesting a fresh methodology for the Oriental painting scene.⁴⁾

The majority of Jang Woo-soung's paintings in this exhibition are categorized as new literati paintings. Among four gracious plants, what Jang Woo-soung painted the most is the plum flower. The plum flower is a herald of spring and a metaphor for purity, as it is the first to burst into bloom even in the snow, braving the cold of early spring. In the early stages, Jang Woo-soung often painted red plum blossoms by applying red color using the seonyeom (ink diffusion) technique instead of putting ink dots to describe petals. In his 1956 work, "Red Plum Flower," he subdivided the branches of several plum blossoms using dark ink and brush strokes of bibaek (飛白, technique of flying-white) on a long vertical paper and represented the petals with red color. This style reminds us of the tiexianmiao (iron-wire line drawing) that Wu Changshuo (吳昌碩, 1844~1927), a Chinese painter and calligrapher of the late Qing Period, frequently used in his works. The influence of Wu Changshuo's painting and calligraphy on Jang Woo-soung's creation was also evident in another of his works presented in this exhibition, "A Banana Tree and a Parrot" (1967). It is revealed in the text he wrote in the official seal of the work, "學缶翁意," meaning "to learn the will of Fou Weng (Wu Changshuo's art name)." However, Jang Woo-soung used thinner and more consistent thickness of straight lines than Wu Changshuo's to visualize the "stubborn old

stems as if cast by melted iron (幹老生鐵鑄)" as described in the painting poetry of the work.

Next is a crane painting. The crane is a large bird called a "durumi" in pure Korean vocabulary. It is a migratory bird that lives in the Ussuri region of Siberia, northeastern China, and Hokkaido, Japan and flies to the central and northern regions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late October to March of the following year to pass the winter. The crane has been considered a sacred mystical bird since ancient times due to its pure and elegant figure. Not only its beautiful appearance but also its unique ecological characteristics create a good impression on the public. Its faithfulness to lifelong monogamy, habit of sleeping standing up, dance-like courtship behavior during the breeding season, and far-reaching calls have inspired artists. The image of two cranes being together, as we see in the work "Pine and Crane" presented in this exhibition, symbolizes a conjugal affection of lifelong loyalty and love. Furthermore, when the two cranes coexist with the pine tree and the sun, it contains meaning of wishing a lifelong happy union of a couple, such as "May you, like the crane and the pine tree, enjoy longevity (松鶴同春)," "May you enjoy a life as long as that of the pine tree and the crane (松鶴長春)," and "May you attain the age of a pine tree and the longevity of a crane (鶴壽松齡)."

Jang Woo-soung, who lived to be 94 years old, was an artist with expertise in a wide span of traditional East Asian art forms such as figure painting, landscape painting, flower, bird, and animal painting. The Chinese classics, which he learned from his family since childhood, naturally led him to the world of literati painting, and the modernism that emerged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became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pioneering of his unique new literati painting.

3. Changwoon(蒼暲) Lee Yul-mo (李烈模, 1933~2016)

Changwoon Lee Yul-mo was born in 1933 in Boeun, Chungbuk. He grew up in the backwoods, deep in the mountain with clear water, and moved to Incheon with his parents at the age of 11, where he attended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He then entered the Department of Painting, College of Fine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where he studied both Oriental and Western painting before deciding to major in Oriental painting under Jang Woo-soung and No Soo-hyeon. Lee Yul-mo submitted to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Korea for the first time in 1959 after he completed his military service. His early entries to the National Art Exhibition were all figure paintings. Then, after graduating from university and working as an art teacher at a secondary school, Lee Yul-mo gradually switched to landscape painting, going outdoors in his spare time to sketch the surrounding landscape. Lee Yul-mo then passed the international student selection examination organiz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ad an opportunity to spend three years studying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and Howard Un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During this time, he experienced the freedom and openness of American university classes and visited numerous art museums to appreciate first-hand the works of international masters.

By the time Lee Yul-mo returned to Korea from his studies abroad, Oriental painting communities were confronting the emergence of various discourses on new artistic trends. Western art, such as Informel and Cubism, was spreading in the Korean art scene at the time and suggested as the solution to the discourse of 'modernity in Oriental painting.' On the other hand, the Mungnimhoe (墨林會, Ink Forest Group), founded in 1960, was actively experimenting with Ink-wash Abstraction utilizing paper, brush, and ink. As is widely known, Mungnimhoe

was founded in 1960 by Sanjeong Suh Se-ok (徐世鈺, 1929~2020) along with a group of rising artists majoring in Oriental paint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o experiment with the new plasticity of Oriental painting.⁵⁾ The members of Mungnimhoe wanted to inherit the East Asian ink painting tradition and find a solution to the modernity of Oriental painting at a time when colored painting was considered a Japanese style.

The art scene expected Lee Yul-mo, who had experienced both Eastern and Western art and a wide range of educational methods in the United States, to play an active role in the evolution of Oriental painting circles in Korea. However, Lee Yul-mo had a different idea: he rejected the abstract itself. For example, in 1963, he published an article titled "Abstract is not art" in the magazine *Generation*, setting forth the value of figurative painting. He asserted that modern art's most significant interest lies outside of art, such as pure geometry, modern space, and the unconscious, which he cannot call art. According to his idea, since abstract art starts by ignoring nature and destroying human elements, it denies 'description,' which is an essential element in the creation of paintings. He also added that abstract art is a "hobby art that enjoys the uncertain world like a dream, fond of symbol more than perception, has no consideration for nature or human beings, and has no subject."⁶⁾ As a disciple of Jang Woo-soung, Lee Yul-mo's remarks are rooted in his belief that the representation of real objects and their connotations are meaningful.

Lee Yul-mo began painting landscapes in earnest after becoming a professor at Kyung Hee University. From the 1970s, he presented hyperrealistic landscape paintings depicting surrounding mountains and streams, focusing on Buddhist temples and tile-roofed houses as his main

4) For a comprehensive discussion on Jang Woo-soung's four gracious plant paintings, see Lee Seon-ok, "Contemporary Transformation of Traditional Subject Matters: Woljeon Jang Woo-soung's Four Gracious Plant Paintings," in *Woljeon, Beyond Tradition: Collection of Articles from the 1st and 2nd Woljeon Academic Forum* (Woljeon Museum of Art Icheon, 2014).

5) Regarding Mungnimhoe, see papers: Park, Pa-rang, "An Abstract Study of Oriental Painting Circles-Centering on Mungnimhoe"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2007); Kim, Chul-hyo, "Mungnimhoe Told by Mungnimhoe Painters," in *History of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Art*, vol.22 (Korean Society for the History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2011).

6) Lee Yul-mo, "Abstract is Not Art," in *Generation*, November 1963.

subjects. Rather than the East Asian painting formats represented by the handscroll or scroll, Lee Yul-mo captured and delicately described beautiful mountains and streams from a single angle on paper with a proportion of a canvas, creating paintings that look like landscape photographs taken with a camera. On the other hand, Lee Yul-mo actively adopted the compositional methods of Western painting but also inherited the methodologies existing in Eastern aesthetics. For example, he introduced the three distances of perspective (i. e., high [高], deep [深], and level [平]) defined by Chinese artist Guo Xi (郭熙, 1020? ~1090) in the Northern Song Dynasty in his landscape paintings.

Among the works of Lee Yul-mo, this exhibition includes “Hyangwon Pavilion” and “An Autumn Landscape of Mountain DU-TA,” which are real scenery landscape paintings representing specific locations. In “Hyangwon Pavilion,” three or four tall trees are placed in the foreground. Behind them, the scenery around the Hyangwon Pavilion and the mountains in the distance are depicted on a small scale to give the painting a sense of depth. In “An Autumn Landscape of Mountain DU-TA,” the dragon-shaped waterfall located in Mountain DU-TA is described in ink and light-colored paintings. The derived shadows are expressed with the light, which reveals the massive sense of volume of the rocky cliffs. In both works, the artist adjusted liberally the size of the elements in the landscape or reflected shades and shadows at his will. Lee Yul-mo visited local landscapes and famous scenic spots that represent the daily life of rural people to sketch them and then recreate them into ink and light-colored paintings. In this way, he left a number of paintings of real scenery landscapes.

4. Iseok (以石) Lim Song-hee (林頌羲, 1938~2022)

Iseok Lim Song-hee was born in 1938 in Jeungpyeong, Chungbuk. He spent his early childhood in his hometown and graduated from Jeungpyeong Technical High School. In 1956, he entered the Department of Painting, College of Fine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where he inherited the character ‘心’ (meaning ‘heart’) from Simgyeong (心耕) Park Se-weon (朴世元, 1922~1999), a professor of Oriental painting at the time, to choose his art name Simjeong (心井). Lim Song-hee started his career as an artist in 1962 when he won a selection at the 11th National Art Exhibition of Korea while he was still a student.

After graduating from university in 1963, he joined the exhibition of Mungnimhoe. However, when Mungnimhoe was disbanded in 1964, Lim Song-hee could no longer be active in the group. The artist also participated in the Korean Painting Society, founded in the spring of 1967. The Korean Painting Society held group exhibitions seeking new expressions of paper, brush, and ink, as well as innovative content for painting. It was composed of a group of young artist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including Kim Won-se (金元世), Lee Kyu-sun (李圭鮮, 1938~2014), Chang Sang-seon (張相宣), Jung Chi-hwan (鄭致煥), Chung Tak-young (鄭晔永, 1937~2012), Jung Sang-won (鄭相元), Song Young-bang (宋榮邦, 1936~2022), and Shin Young-sang (辛永常, 1935~2020).

Lim Song-hee has diversely managed various matters and materials throughout his life. First, he submitted figure paintings at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Korea in the early 1960s, winning selections at the 11th, 12th, 14th, and 18th editions of the event with figure paintings titled “Field,” “Sunset,” “Women of Sosabeol,” and “Summer Day.” His prolific creation of figure paintings was then encouraged by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set up the

list of subjects for the entries to submit to the Exhibition: images of sound labor and national revitalization, which are the foundation of unity and development of the nation. Considering this trend of the selection of the National Art Exhibition at the time, Lim Song-hee also used diligent laborers in cities and rural areas as a motif to realistically recreate the construction and labor scenes that bloomed in the 1960s.

Lim Song-hee began painting female figures in earnest in the 1990s. In particular, he has expressed a special interest in traditional dress through his series of ‘Beauty in Hanbok.’ “Palace Festival” that we meet in this exhibition is a figure painting portraying a dancer in a red and blue ceremonial dress. Inspired by Jang Woo-soung’s work, Lim Song-hee originally painted each dancer on separate papers and later put them together for this piece. Lim Song-hee thoroughly researched details of hanbok (the traditional Korean costume) and precisely described the hair ornaments, norigae (traditional Korean accessories,) and patterns. He wanted to highlight the beauty of traditional costumes, the sophistication of the jewelry, and the combination of primary colors yet in good harmony. On the other hand, the artist described models wearing ceremonial dresses with Western body proportions and facial features. In other words, although the artist chose the traditional material, which is the ceremonial dress, he created an image of an unspecified beauty with the Western appearance that modern people prefer. It means that the work reveals a multicultural visuality that combines traditional motifs with Western styles.

Lim Song-hee also created a variety of landscape paintings. He either expressed only the basic shapes of the landscape utilizing the techniques of broken brush and splashed ink or visited famous scenic spots in person to

paint the nature he experienced directly with his eyes and heart. The former is a landscape of freehand brushwork in which the artist depicts the image of a landscape in his mind, while the latter is a real scenery landscape painting that reproduces the actual landscape just as it is with elaborate, precise, and delicate brushstrokes. “Zhangjiajie,” exhibited in this exhibition, belongs to the latter category. “Zhangjiajie,” produced in 2004, is a real scenery landscape painting representing a famous scenic spot located in Zhangjiajie, a prefecture-level city in the Hunan Province, China. The middle ground was described as just clouds and fog. Only the mysterious rock walls in the foreground and background were carefully and meticulously detailed and then completed with dark red and yellow-green expressed by seonyeom (ink diffusion technique). The beautiful scenery that has been officially recogniz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is transformed into a fantastic landscape with the help of light ink, as well as fog and clouds placed in the margins of the canvas. As we can witness here, Lim Song-hee not only had a mastery of the distinctive use of wet brush and dry brush, as well as colored painting and ink painting but also crossed the boundaries between figurative and abstract arts to create highly diversified landscape paintings.

III. Korean painting artists with ties to Chungbuk

1. Woonbo (雲甫) Kim Ki-chang (金基昶, 1913~2001)

Woonbo Kim Ki-chang was born in Unni-dong, Seoul, in 1913, as the eldest of eight children to Kim Seung-hwan (1895~1932), an employee of the Bureau of Land Management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and mother Han Yun-myeong (1895~1932). He spent his childhood briefly in Gongju, Chungcheongnam-do Province, and became disabled in the second grade of Seungdong Primary School at the age of eight after losing his hearing due to a high fever caused by typhoid fever. His mother, a nurse at Severance Hospital at the time, taught her hearing-impaired son language and math by herself. When she noticed his exceptional drawing skills, she went to see Na Hae-suck (羅蕙錫, 1896~1948), a classmate at Jinmyeong Girls' High School, who recommended Idang Kim Eun-ho as an art teacher. Thus, the 17-year-old Kim Ki-chang began studying painting and calligraphy at Kim Eun-ho's art school, Nakcheongheon. However, after two years of studies at Nakcheongheon, his mother, who was his only support, passed away. The loss of his most reliable supporter led him to devote himself to painting even more. Adopting the Japanese neoclassical style of painting that obtained high popularity at the time, he created portraits of beauty expressed with Joseon sensibilities or flower-and-bird paintings that captured the profound and mysterious mood of nature. Meanwhile, he won the Changdeokgung Award, the highest honor at the Joseon Art Exhibition, for his work "Old Tale" at the 16th Joseon Art Exhibition (1937) and the Governor-General Award in 1938 for his work "Summer Day" at the 17th Joseon Art Exhibition (1938). During this period, he used

the art name Woonpo (雲圃), given to him by his mother. However, shortly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he changed it to Woonbo (雲甫), which dropped the ㅍ of the second character to signify freedom from the Japanese yoke.

Another person who changed Kim Ki-chang's life was his wife, Uhyang (雨鄉) Park Re-hyun (朴峽賢, 1920~1976). She was born in 1920 in Biseok-ri, Jinanpo, Pyeongannam-do Province, as the eldest of two sons and one daughter to Park Myeong-su (朴命洙), a large landowner, and mother Cho Gi-guk (趙基菊). After spending her childhood in Gunsan, she moved to Seoul on her own with dreams of becoming a filmmaker or a doctor and entered Keijo Normal School in 1936, where she met Keishiro Eguchi (江口敬四郎, 1907~?), a Japanese art teacher. At the recommendation of Keishiro Eguchi, she decided to study in Japan. She left for Japan in 1939 and entered the Japanese Painting Division, the Department of Art Education, Women's School of Fine Arts in Tokyo in 1940. Graduating a semester early, instead of returning to Korea immediately, Park Re-hyun chose to continue her study in the studio of Hoka Iwabuchi (岩淵芳華, 1901~1956) and also submitted at the Teikoku Fine Arts Exhibition, which was a major public exhibition in Japan. On the other hand, she won the Governor-General Award at the 1943 Joseon Art Exhibition with "Make-up." Park Re-hyun came to Gyeongseong [Seoul] for a brief time to attend the Joseon Art Exhibition award ceremony and, as destiny would have it, met her lifelong companion, Kim Ki-chang.

Kim Ki-chang, a 30-year-old young man at the time, fell in love with Park Re-hyun at first sight as she was talented like his mother. The two grew in love, exchanging letters and promising a future together, but Park Re-hyun's father was firmly against their marriage. In early 1947, they were eventually married in a small ceremony without Park

Re-hyun's parents' attendance. Kim Ki-chang changed the Chinese character for his wife's name from "來 (rae meaning "come")" to "峽 (rae, name of a mountain)" and gave her the art name Uhyang (雨鄉). Later, Park Re-hyun was so impressed by the 1948 movie "And Now Tomorrow" that she decided to teach her husband sign language.⁷⁾

When the Korean War broke out, Kim Ki-chang and Park Re-hyun fled to Gunsan, where her family lived. Her father still disregarded Kim Ki-chang, but it was an inevitable choice for the poor painter couple. The two earned a living by painting portraits of American soldiers in Gunsan while they explored several methodologies to achieve modernity in Oriental painting. As ink-wash abstraction became prominent in Oriental painting circles, along with discourses on modernity and a break from the Japanese style, Kim Ki-chang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olored painting and introduced the style of cubism to present ink and color painting where figurative and non-figurative arts coexist. In 1957, he formed the Baegyanghoe (白陽會, White Sun Group). Kim Ki-chang regularly held the Baegyanghoe Members Exhibition and the Young Artist Competition. In addition, for the first time as a private organization, the group held an overseas exhibition tour. The members of Baegyanghoe strived to experiment with various contemporary aspects of traditional painting while respecting each other's individuality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works. Moreover, Kim Ki-chang has actively participated in overseas art events since the 1960s, including the Bienal de São Paulo, where he presented abstract paintings completed with "brush stroke techniques and a keen sense of touch" to "rub, polish, and paint to achieve diversified paste of matière."

After his wife, Park Re-hyun, passed away in 1976, Kim Ki-chang's painting career changed. He began to create Babo Sansu (idiot's landscape), a semi-abstract poetic landscape that captures innocent and childlike minds. It is "so unadorned and innocent that it is called babo [idiot]," he said, adding an explanation that "the subject matter is old and banal, but it can create new beauty and pleasure." He also became involved with Chungbuk in 1979 when he decided to build "Woonbo's House" as a traditional hanok in Cheongwon-gun, Chungbuk. He later organized the Korea Deaf-and-Mute Welfare Association and served as its first chairperson. As such, Kim Ki-chang was both an artist who produced paintings encompassing a wide range of genres with innate sensitivity and outstanding competence and a patron who kindly understood and embraced the people around him.

2. Namjeong (藍丁) Pak No-soo (朴魯壽, 1927~2013)

Namjeong Pak No-soo was born in 1927 in Yeongi-gun, Chungcheongnam-do Province, as the eldest son of Park Sang-rae (朴祥來) and Kim Bong-geum (金鳳今). At the age of five, he learned Chinese characters from his grandmother, Gwak Gui-su (郭貴秀), and then calligraphy from his father. He attended Jeongan Public Primary School in Gongju, Chungcheongnam-do Province, and then moved back to Cheongju, Chungbuk, where he graduated from the five-year Cheongju Commercial School in 1945. Afterward, he wanted to go immediately to Tokyo for studies, but the situation of the end of the Pacific War forced him to abandon the wish. However, he was introduced to paper, brush, and ink at the Cheongjeon Lee Sang-beom's Art School, run at the artist's private residence located in Nuha-dong, Seoul, when Pak No-soo was 18 years old.

7) Kang, Min-gi, "Embodying the Spirit of Free Form: Park Re-hyun's Figure Painting," in Triple Interpreter, Park Re-hyun,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2021), p.28.

His path as an art student began when he entered the Painting Department I at the College of Fine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At that time, Kim Yong-Jun and Jang Woo-sung were in charge of practical lessons in drawing and oriental painting in the painting department. Pak No-soo also submitted at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Korea every year from 1949, when he was 22, until 1981, when he was 54, without missing a single year. He stood out from the second edition (1953). He won awards such as the Prime Minister Award, the Presidential Award, and special selections one after another. From the sixth edition (1957), when he was 30, he served as a recommended artist, a judge, and the chairperson of the steering committee, which shows that the history of the National Art Exhibition accompanied his evolution as a Korean painter. In the prime of his life, Pak No-soo fostered his students as a university professor and actively participated in exhibitions at home and abroad, as well as joined national projects of the government, strengthening his position as a true leading figure in the Korean painting scene.

Pak No-soo grew up in the ordinary backwoods, thoroughly enjoying nature. The spring sunshine, the generous mountains and fields, the haze and the sound of cuckoos, the autumn with ripe fruits, mountains and fields covered with crimson autumn leaves, and the mountain streams with clear water were all his childhood friends. These beautiful memories provided great nourishment for his creativity. Pak No-soo began painting landscapes in earnest in the 1970s. He also introduced his most beloved color, ultramarine.

What does the ultramarine color mean to Pak No-soo? As the painting poetry for his work "Boy" (1972), Pak No-soo chose a poem by Chinese poet Wang Wei (王維, 699~759) entitled "Unexpectedly Visiting Private

Gentleman Cui Xingzong with Official Lu in His Forest Pavilion" (與盧員外象過崔處士興宗林亭); specifically the 1st and 2nd line of the poem saying, "Layers of green trees form shade that covers the neighborhood, The thick azure moss shines naturally without dirt." (綠樹重陰蓋四隣 青苔日厚自無塵).⁸⁾ According to this poem, Pak No-soo's beloved ultramarine color is "azure moss" that hides and removes the dirt of the world. In the work "Lofty Scholar," which is part of this exhibition, we can also observe the omission of objects, simplification of shapes, and his signature ultramarine color. The colors, which are so high in brightness and saturation that they create the impression of clarity and transparency, enhance a decorative effect to the implicative subject matter, contrasting with the white margins of the Korean paper.

Pak No-soo's landscape paintings feature a seated boy staring at a distant mountain, a boy standing on a tiny boat holding an oar, and a white horse and a boy remaining under a tree. The poses and movements of the boys vary, but they all share one common point: wearing white clothes. In "Boy" (1974), the rocks at the bottom are lightly colored with a light brush and hobun (shell white), while the background is darkened with a deep navy blue. The boy has neat and short hair, a long neck, and a slightly curved back. He is crouching down and looking into the distance, giving an impression of being calm but lonely and forlorn. Pak No-soo once confessed, "They say the painters paint Oriental landscapes for themselves to play there. That is probably the reason you can often feel that the person in the painting is the artist themselves. Orientals love nature and long to be a part of it." The boy in the painting may be a self-portrait of the artist, who spent his childhood in a mountain village.⁸⁾ In this way, Pak No-soo, based on traditional painting methods, brought in neat and fresh Western sensibilities. Gradually,

he transformed objects and broke away from the modern spatial composition, simplifying and flattening the image to establish his own individuality.

3. Sojeong (素丁) Hwang Chang-bae (黃昌培, 1947~2001)

Hwang Chang-bae was born in Seoul in 1947. He learned the Chinese classics and classics in general from his father, who was a Korean medicine doctor. But he also inherited his mother's artistic talent and loved to draw from an early age. He was a member of an art club for six years during his secondary school years. Despite the disapproval of his parents, he entered the Department of Painting, College of Fine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where he first experienced his formal art education. After attending graduate school, Hwang Chang-bae pursued a full-time career as an artist, learning seal engraving and calligraphy from Cheolnong Lee Ki-woo (1921~1993) and portrait techniques from Jang Woo-sung. In his twenties, Hwang Chang-bae discovered a path to establish himself as an artist: winning awards at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Korea. Hwang Chang-bae began submitting at this national event on its 17th edition, which was held in 1968, while still a student majoring in paint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continued to participate until the last edition (the 30th), except for his military service period.

Hwang Chang-bae also served as a professor at several universities. In 1990, he turned into a full-time artist and set up a studio in Jeungpyeong, Chungbuk. It was his workplace until he passed away in 2001. In the Jeungpyeong studio, Hwang Chang-bae immersed himself in exploring materials other than paper, brush, and ink. Of course, Korean painters have already attempted experimentation with materiality since the 1960s. Park Re-hyun, for example, used candles, crayons, and

terebene mixed with Korean ink or glue to represent the uneven texture of bronzes in the early 1960s. Ahn Sang-chul (安相喆, 1927~1993) experimented with collage by dripping ink onto hanji, Korean paper, and pasting stones, wood, or canvas. Ahn Dong-sook (安東淑, 1922~2016) has been working since the late 1960s in a hybrid of printmaking, painting, and collage.

After graduating from graduate school, Hwang Chang-bae also started experimenting with the fog and mist (煙霧) technique, in which he boiled linen in lye to create figures of stains, and the fruit of this experimentation, the "Secrecy (秘)" series brought several awards to the artist, including the Presidential Award at the National Art Exhibition. However, the expansion of the boundaries between two-dimensional and three-dimensional, or between Oriental and Western painting, marked its real beginning after the Artists Colony (organized by the N.Y. Foundation for the Arts), in which he participated for three months from December 1988. Since 1989, he has applied acrylic or gouache to Korean paper instead of traditional materials or chosen canvas as a base medium instead of hanji, Korean paper. These experiences laid the foundation that led to various experiments during the Jeungpyeong period.

The brushwork with acrylic paints emphasized bibaek (飛白, technique of flying-white), which refers to the hollow spaces that remain white even after the brushstrokes have passed over that part due to the high speed and the dryness of the brushwork. Hwang Chang-bae applied the bibaek technique, a long-standing East Asian painting style, using Western brushes. Furthermore, he invented lines in which multiple colors coexist in a single brushstroke. As mentioned earlier, lines in Western painting are often used as a foundation for drawing or expression of a sense of volume. However, Hwang

8) Namjeong Pak No-soo, "Landscape painting, one nature created on the basis of Eastern philosophy," in *Life of a Painter*, (CultureBooks, 2010), p.88.

Chang-bae actively introduced the strokes with a centered brush as well as the attributes of light and shade in order to express the changes in color through brushstrokes. In addition, he further enhanced freedom of expression by diversifying the choice of objects, such as twine.

Hwang Chang-bae has titled his works "Untitled" since the mid-1980s. For him, a specific title for a work was not necessary. "Untitled" (1997), a painting work on view in this exhibition, was created at a time when he became aware of the symptoms of his health problems. Hwang Chang-bae depicted a colorfully decorated bier on a large screen that was over five meters wide. The figures of a group of people marching with the bier on their shoulders were expressed like a silhouette, marginalized on the background of hanji paper. Those figures of the people revealed in sosaek (素色, natural white) are the supporting characters to highlight the colorful bier, the main character, and they are also the veiled main characters who create movement in the image. The general emotion related to 'death' would be 'sorrow.' Visual depictions of death are mostly dark and gloomy. Nonetheless, death described by Hwang Chang-bae is different: he seems to see death as a feast of passing to the other world. Thus, he sublimated the death into an event of joy by using bright, cheerful pink, red, and yellow.

As such, Hwang Chang-bae always explored materiality in a diversified way on top of the traditional brush and ink method base developed through calligraphy and seal engraving. These creations came to fruition in his studio in Jeungpyeong, Chungbuk. The unconventional lines that dash across the screen and the ink and colors spread over the various objects remind us of the notes of Chinese artist and art theoretician Jing Hao (荆浩), saying, "Applying all the varieties of strokes in accordance with

your purpose, although you must follow certain basic rules of brushwork," "Thus making them [shapes and colors] appear as natural as if they had not been done with a brush." The vigorous jangbong (藏鋒, technique of hiding the tip of the brush), delicate description, the ink rich in light and shade, splendid colors, the grammar of bold omission and emphasis. These features should define the creation that Hwang Chang-bae accomplished.

IV. Conclusion

Korean painting refers to paintings based on paper (or silk), brush, and ink, which are completed by adding color pigments. Until the 1970s, these paintings were called Oriental paintings. In the 20th century, Korean painting evolved alongside the turbulent and painful modern history of Korea. While retaining the long-standing East Asian painting discourses and methods inherited until the Joseon Dynasty, Korean painting has always been seeking to understand new styles imported either through Japan or directly from the West. The seven artists presented in this exhibition have also experienced the upheaval of the histor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have strived to develop their original art world through many years of hard work and effort. It is why just viewing their paintings leads us to discover the propositions and solutions that Korean painting circles of the 20th century have been addressing. These artists constantly pursued to create their own unique way of painting while inheriting tradition and applying new painting methods; this is why we should pay particular attention to this exhibition and reinterpret the lives and works of the seven artists.

작가

Artists

심향 박승무 Park Seung-mu (1893~1980)

월전 장우성 Chang Woo-soung (1912~2005)

운보 김기창 Kim Ki-chang (1913~2001)

남정 박노수 Pak No-soo (1927~2013)

창운 이열모 Lee Yul-mo (1933~2016)

이석 임송희 Lim Song-hee (1938~2022)

소정 황창배 Hwang Chang-bae (1947~2001)

일러두기

본 도록 도판설명은 작품명, 제작년도, 재료 및 기법, 크기, 소장처 순입니다.

작품크기는 세로×가로 순입니다.

nota bene

The captions for artworks in this catalog present information in the following order: the title of the artwork, year of production, medium and technique, dimensions, and collection.

The dimensions are ordered by 'height×width.'

심향(深香) 박승무(朴勝武)

1893 ~ 1980



계촌모설

1964

지본담채

31.5×65.5cm

코리아나미술관 소장

Winter Landscape

1964

Ink and light colors on paper

31.5×65.5cm

Collection of the Coreana Museum of Art



Snowy Landscape

1975

Ink and light colors on paper

65×125cm

Gana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Collection

설경산수

1975

종이에 수묵담채

65×125cm

가나문화재단 소장

월전(月田) 장우성(張遇聖)

1912 ~ 2005



수선
2003
종이에 수묵담채
40×40cm
월전미술문화재단 소장

Narcissus
2003
Ink and light colors on paper
40×40cm
Woljeon Foundation for Art and Culture Collection



홍백매 紅白梅
1956
종이에 수묵담채
136×35cm
월전미술문화재단 소장

Red Plum Flower
1956
Ink and light colors on paper
136×35cm

Woljeon Foundation for Art and Culture Collection



Spring Scenery
unknown
Ink and light colors on paper
97×150cm
Woljeon Art Culture Foundation Collection

춘경 春景
연도미상
종이에 수묵담채
97×150cm
월전미술문화재단 소장



송학도 松鶴圖
1992
종이에 담채
88×103cm
월전미술문화재단 소장

Pine and Crane
1992
light colors on paper
88×103cm
Woljeon Foundation for Art and Culture Collection



A Banana Tree and a Parrot
1967
colors on paper
67×95cm
Woljeon Foundation for Art and Culture Collection

파초와 앵무새
1967
종이에 채색
67×95cm
월전미술문화재단 소장

운보(雲甫) 김기창(金基昶)

1913 ~ 2001



Owl

1971

Ink and colors on silk

90×100cm

Gana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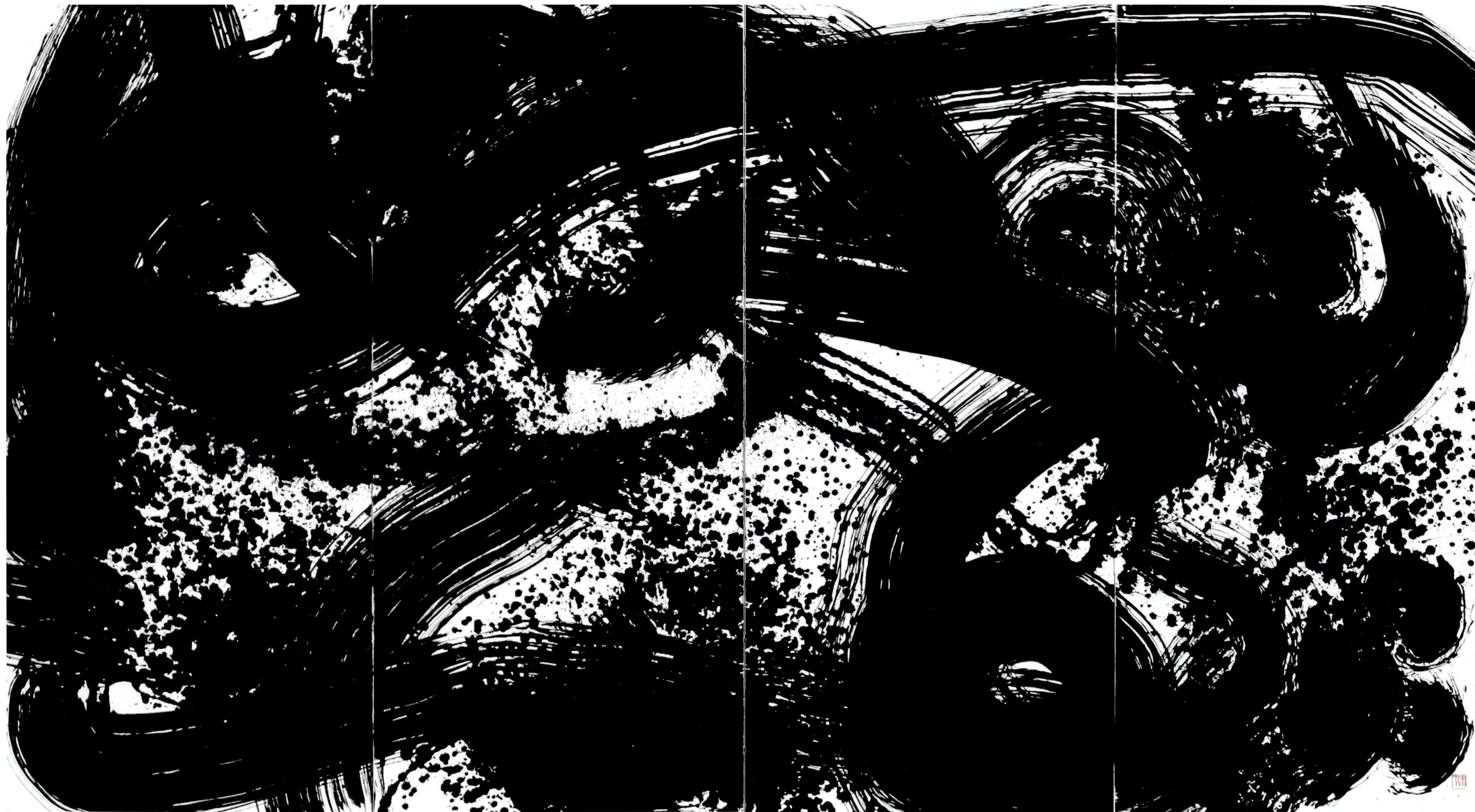
부엉이

1971

비단에 수묵채색

90×100cm

가나문화재단 소장



Point & Line Series (four-panel screen)

1993

Ink on paper

178×346cm

Woonbo Foundation of Culture Collection

점과 선 시리즈(4폭병풍)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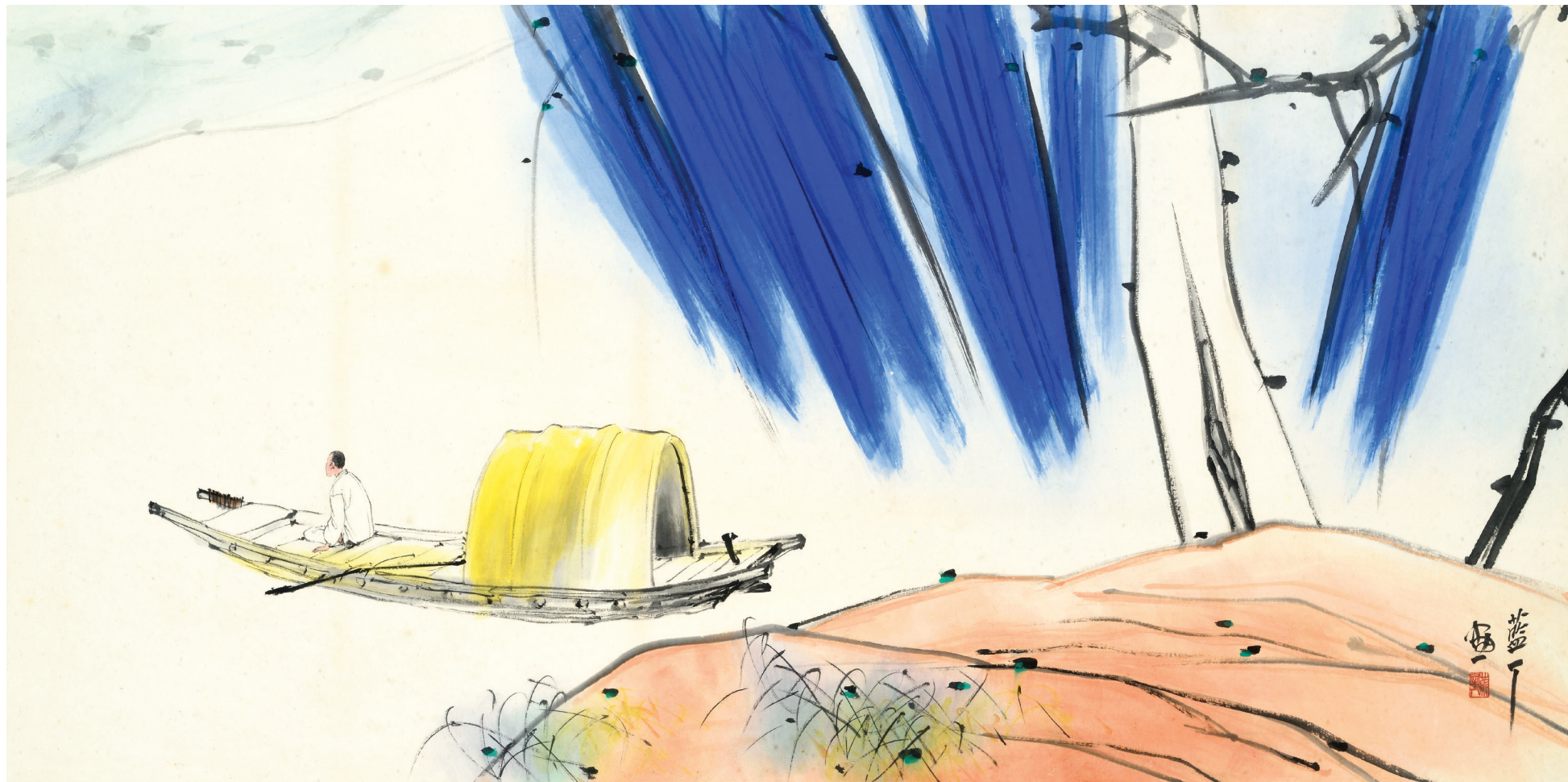
종이에 수묵

178×346cm

(재)윤보문화재단 소장

남정(藍丁) 박노수(朴魯壽)

1927 ~ 2013



Landscape

unknown

Ink and colors on paper

67×137cm

Gana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산수

연도미상

종이에 수묵채색

67×137cm

가나문화재단 소장



Scholar

unknown

Ink and light colors on Korean paper

96×178cm

Jongno Pak No-soo Art Museum Collection

고사 高士

연도미상

한지에 수묵 담채

96×178cm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 소장



Boy
1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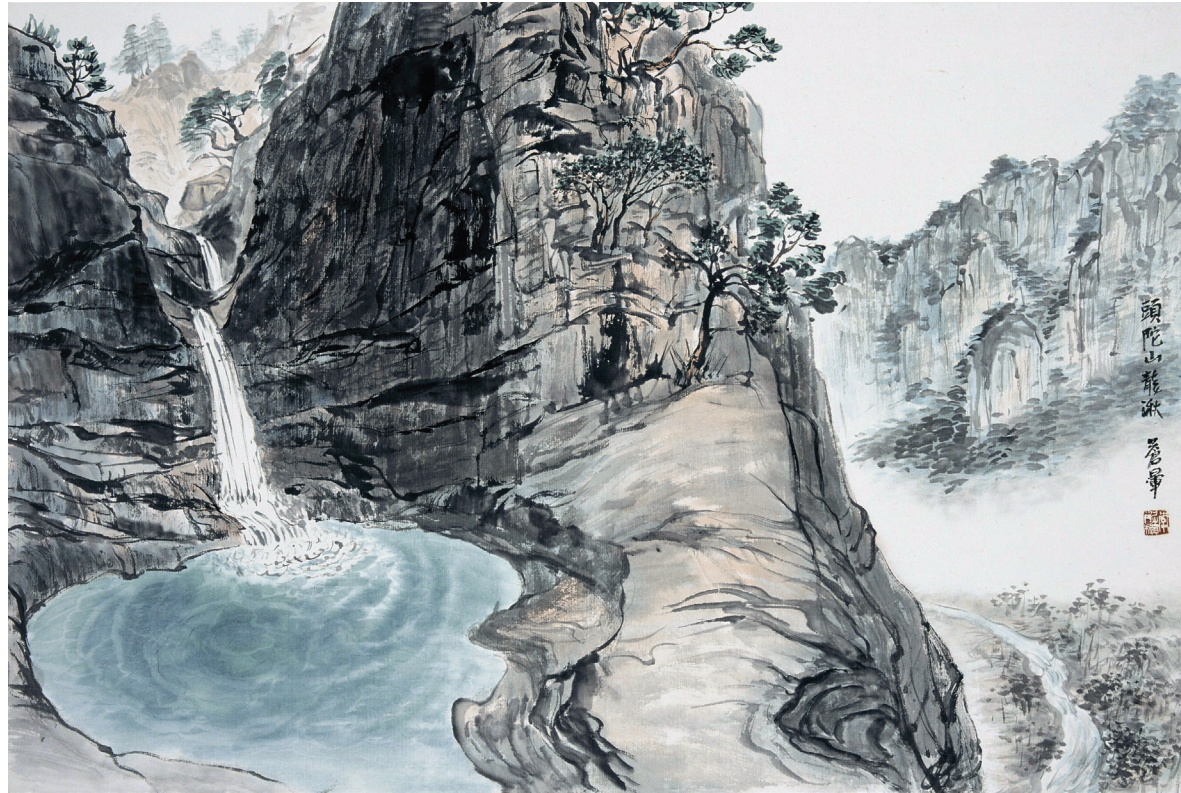
Ink and light colors on Korean paper
82×151.1cm
Jongno Pak No-soo Art Museum Collection

소년
1974

한지에 수묵 담채
82×151.1cm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 소장

창운(蒼暈) 이열모(李烈模)

1933 ~ 2016



두타산 용추
2006
종이에 수묵담채
46×68cm
월전미술문화재단 소장

A Autumn Landscape of Mountain DU-TA
2006
Ink and light colors on paper
46×68cm
Foundation for Art and Culture Collection



Hyangwon Pavilion
1993
Ink and light colors on paper
47×68cm
Private Collection

향원정 香遠亭
1993
종이에 수묵담채
47×68cm
개인소장



彼间樂自如
壬子暮春
趙炳華恩師文理大
學長就任記念

Shrimp
1972
Ink on Korean paper
33.5×140cm
Private Collection

새우
1972
한지에 수묵
33.5×140cm
개인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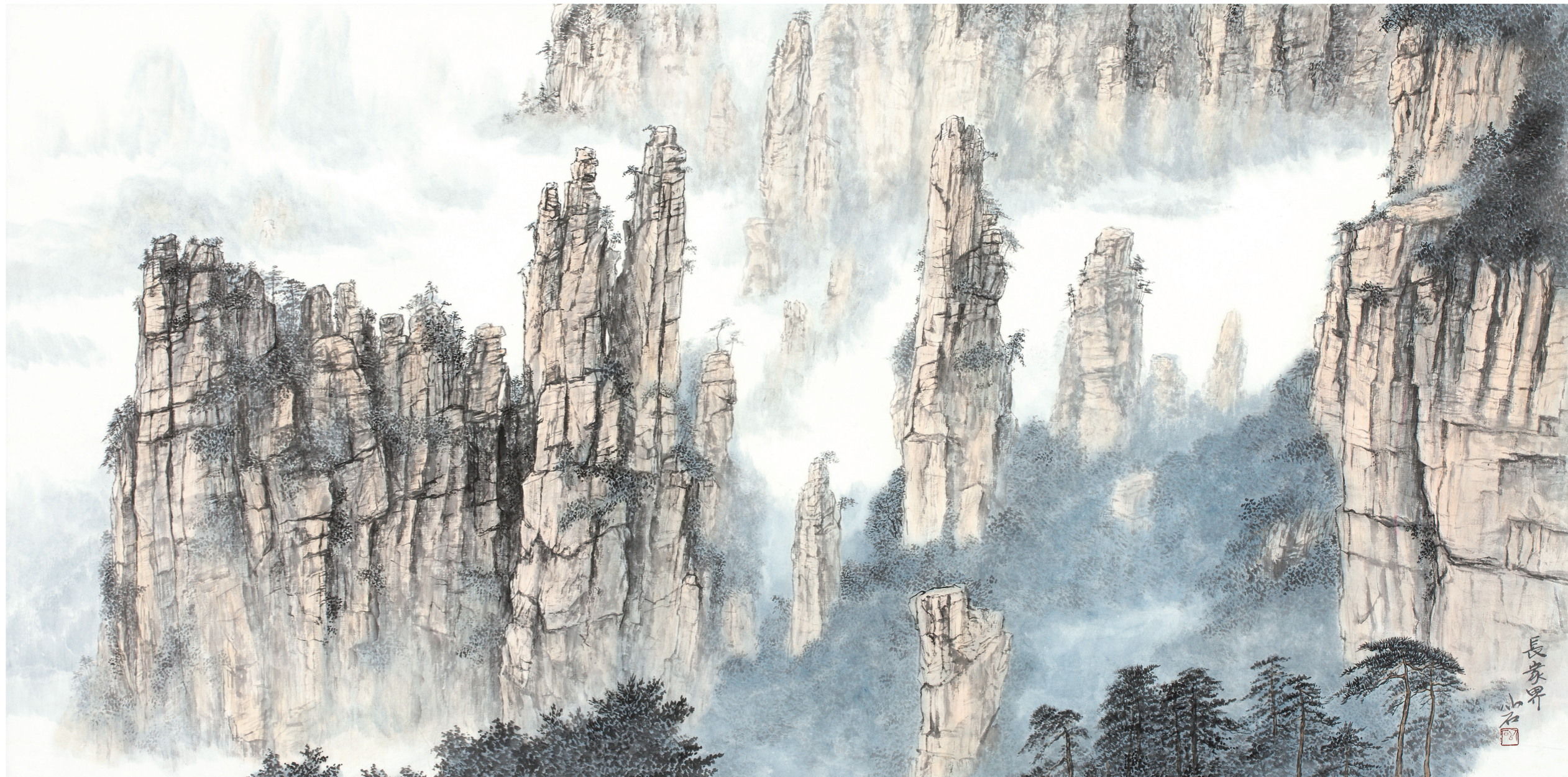
이석(以石) 임송희(林頌羲)

1938 ~ 2022



고궁 축제
2011
한지에 먹,채색
129×318cm
개인소장

Palace Festival
2011
Korean ink and colors on Korean paper
129×318cm
Private Collection



Zhangjiajie
2004
Korean ink and colors on Korean paper
71×134cm
Private Collection

장가계
2004
한지에 먹,채색
71×134cm
개인소장

소정(素丁) 황창배(黃昌培)

1947 ~ 2001



무제
1995
캔버스에 혼합재료
65×53cm
개인소장

Untitled
1995
Mixed media on canvas
65×53cm
Private Collection



무제
2000
캔버스에 혼합재료
46×46cm
개인소장

Untitled
2000
Mixed media on canvas
46×46cm
Private Collection



Untitled
1995
Mixed media on canvas
91×73cm
Private Collection

무제
1995
캔버스에 혼합재료
91×73cm
개인소장



學
西天
金氏
昌
碩

學
西天
金氏
昌

載
陳
道
禮
永
訣
終

謹
平

平

之
樞

4011301210

전시 전경

Installation View

The legacy of Korean Painting in Chungbuk

충북 한국화의 맥

2024. 3. 14. 목 - 4. 1. 월

-
무제
1997
장지에 혼합재료
260×544cm
개인소장

-
Untitled
1997
Mixed media on Korean paper
260×544cm
Private Collection

The legacy of Korean painting
in Chungbuk

충북 한국화의 백

2024. 3. 14. 목 - 4. 1. 월



The legacy of Korean painting
in Chungbuk

충북 한국화의 백

박승무
장우성
김기창
박노수
이열모
임송희
황창배

Park Seungmu
Chang Woosung
Kim Kichang
Pak Nosoo
Lee Yulmo
Lim Songhee
Hwang ChangBae

2024. 3. 14. 목 - 4. 1. 월



박승무
Park Seungmu

장우성
Chang Woosoung

김기창
Kim Kichang

박노수
Pak Nosoo

이열모
Lee Yulmo

임송희
Lim Songhee

황창배
Hwang ChangBae

충북 한국화의 脈

충북문화재단은 충북갤러리 2024년 첫 기획전으로 《충북 한국화의 脈》 전시를 진행한다. 개관전 《충북 예술의 사막》에 이어 이번 전시는 ‘한국화의 전통과 계승 발전 과정에서 실험적 한국화의 전개와 확산’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작고 예술인 일곱 분 거장의 작품을 선보이며 충북 예술의 지평을 확장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충북 한국화의 脈>에 참여하는 7인은 충북과 남다른 인연이 있는 동향인임과 동시에 파란만장한 한반도의 역사를 고스란히 체험하면서 독자적인 창작을 펼친 한국화가들이다. 이들은 충북에서 나고 자란 심향(深香) 박승무(朴勝武, 1893-1980), 월전(月田) 장우성(張遇聖, 1912-2005), 창운(蒼暉) 이열모(李烈模, 1933-2016), 이석(以石) 임송희(林頌羲, 1938-2022)와, 충북에 연고가 있는 운보(雲浦) 김기창(金基昶, 1913-2001), 남정(藍丁) 박노수(朴魯壽, 1927-2013), 소정(素丁) 황창배(黃昌培, 1947-2001) 등으로 분류된다.

먼저 충북에서 출생한 박승무와 장우성은 일제강점기 서화에서 동양화로 변모하는 시기에 활동한 인물들이다. 죽 옛 그림을 모사하거나 체본을 보고 그림을 배운 다음 자신만의 화법을 고안하며 성장한 화가인 셈이다. 산수화, 화조화, 사군자 등, 다양한 화목과 화제를 소화한 박승무는 유독 눈이 덮인 산천을 좋아하는 까닭에 설경 산수를 많이 그렸다. 장우성은 김은호의 화숙인 낙청헌에서 심세하고 우아한 여성 인물화를 배우며 화명을 떨쳤다. 해방 이후에는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교수로 부임하여 근원 김용준과 함께 ‘신문인화’를 모색했다. 박승무, 장우성과 달리 이열모와 임송희는 화숙이 아닌 대학 교육을 받았다. 이열모는 농촌의 향토적인 풍경이나 이름난 명승명소를 몸소 찾아 현장에서 직접 사생한 실경산수화를 많이 남겼다. 임송희는 의례복이라는 고전적 소재를 선택하여 현대인이 선호하는 서구적 외모의 불특정 미인상을 연출했다.

충북에 연고가 있었던 김기창은 낙청헌에서 화사한 채색의 여성 인물화를 배웠다. 해방 이후 왜색 탈피, 민족성 수립의 화두로 인해 수묵이 강조될 때에도 색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폭 넓은 장르를 소화했다. 박노수는 1950년대 국전에서 여성인물화로 입상했으나 점차 사정적이고 화사한 산수풍경화를 전개했다. 특히 눈이 시리도록 파란 군청은 그의 고유색이 되었다. 황창배는 중평 작업실 시기에 여러 물성을 활용하여 자유분방한 표현을 시도하며 지필묵에 한정된 한국화의 경계를 뛰어넘었다. 이들이 전통의 계승과 신화법의 적용을

이렇듯 이번 전시에 출품된 7인의 회화를 감상하면 20세기 한국화단의 주요 명제와 그 해법이 발견된다. 이들이 전통의 계승과 신화법의 적용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화법을 창안하고자 끊임없이 탐구한 작가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7인의 일성과 작품 세계를 재해석하고 이번 전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평론 중 발췌

송희경 (경채정선미술관 관장)



















충북 한국화의 脈

충북문화재단은 충북문화재단 2024년 첫 기획전으로 《충북 한국화의 脈》 전시를 진행한다. 개관전 《충북 예술의 서막》에 이어 이번 전시는 한국화의 전통과 예술계 발전 과정에서 실험적 한국화의 전개와 확산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작고 예술인 일곱 분 거장의 작품을 선보이며 충북 예술의 재발견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박승무**
Park Seungmu
충북 한국화의 脈에 참여하는 7인은 동향인인과 동시에 파란만장한 한반도의 역사를 고스란히 체험하면서 한국화의 전통과 예술계 발전 과정에서 실험적 한국화의 전개와 확산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작고 예술인 일곱 분 거장의 작품을 선보이며 충북 예술의 재발견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장우성**
Jang Woo-seung
충북 한국화의 脈에 참여하는 7인은 동향인인과 동시에 파란만장한 한반도의 역사를 고스란히 체험하면서 한국화의 전통과 예술계 발전 과정에서 실험적 한국화의 전개와 확산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작고 예술인 일곱 분 거장의 작품을 선보이며 충북 예술의 재발견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김기창**
Kim Ki-chang
충북 한국화의 脈에 참여하는 7인은 동향인인과 동시에 파란만장한 한반도의 역사를 고스란히 체험하면서 한국화의 전통과 예술계 발전 과정에서 실험적 한국화의 전개와 확산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작고 예술인 일곱 분 거장의 작품을 선보이며 충북 예술의 재발견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박노수**
Park Nosu
충북 한국화의 脈에 참여하는 7인은 동향인인과 동시에 파란만장한 한반도의 역사를 고스란히 체험하면서 한국화의 전통과 예술계 발전 과정에서 실험적 한국화의 전개와 확산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작고 예술인 일곱 분 거장의 작품을 선보이며 충북 예술의 재발견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이열포**
Lee Eul-po
충북 한국화의 脈에 참여하는 7인은 동향인인과 동시에 파란만장한 한반도의 역사를 고스란히 체험하면서 한국화의 전통과 예술계 발전 과정에서 실험적 한국화의 전개와 확산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작고 예술인 일곱 분 거장의 작품을 선보이며 충북 예술의 재발견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임승희**
Lim Seung-hee
충북 한국화의 脈에 참여하는 7인은 동향인인과 동시에 파란만장한 한반도의 역사를 고스란히 체험하면서 한국화의 전통과 예술계 발전 과정에서 실험적 한국화의 전개와 확산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작고 예술인 일곱 분 거장의 작품을 선보이며 충북 예술의 재발견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황창배**
Hwang Chang-bae
충북 한국화의 脈에 참여하는 7인은 동향인인과 동시에 파란만장한 한반도의 역사를 고스란히 체험하면서 한국화의 전통과 예술계 발전 과정에서 실험적 한국화의 전개와 확산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작고 예술인 일곱 분 거장의 작품을 선보이며 충북 예술의 재발견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송희경 (잠재정선미술관 관장)



작가약력

Artists CV

심향 박승무 Park Seung-mu (1893~1980)

월전 장우성 Chang Woo-soung (1912~2005)

운보 김기창 Kim Ki-chang (1913~2001)

남정 박노수 Pak No-soo (1927~2013)

창운 이열모 Lee Yul-mo (1933~2016)

이석 임송희 Lim Song-hee (1938~2022)

소정 황창배 Hwang Chang-bae (1947~2001)

심향(深香) 박승무(朴勝武)

Park Seung-mu

1893 ~ 1980

1893 충청북도 옥천에서 출생

1913~1916 경성서화미술회화과에서 수학

1918 상해로 건너가서 그림을 팔아 독립자금을 댐

1923~1925 일제의 감시를 피해 만주로 가서 3년간 체류함

1926~1931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함

1934 조선미술연구회 회원으로 미술단체에 참여함

1939 청진조선회관에서 《제1회 박승무 개인전》을 개최함

1945 덕수궁 석조전에서 열린 《해방기념문화축전미술전》에 출품함

1949, 1953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의 불공정성 때문에 출품을 거부하고 재야작가로 지냄

1957 충청남도 미술문화상 수상

1960 대전 호남지역에서 개인전을 열고 야인작가로 활동함

1980 7월 25일 별세

1982 『한국의 회화: 심향 박승무 화집』이 출간됨, 예경

2005 대전미술협회 주최로 심향 박승무 선생 추모 25주년 학술심포지움 개최됨

2006~2007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심향 박승무 26주기 회고전》을 개최함

2008 7월 25일 대전 중구 목달동 묘소에서 28주기 추모식이 열렸음

2009 심향선양위원회에서 유고화집인 평전 『소요, 그 깊고 그윽한 향기』를 출간

1893 Born in Okcheon, Chungcheongbuk-do

1913~1916 Studied at the Gyeongseong School of Painting and Calligraphy, Art and Painting Department

1918 Moved to Shanghai and raised funds for the anti-Japanese independence movement by selling paintings

1923~1925 Stayed in Manchuria for three years to escape Japanese surveillance

1926~1931 Submitted entry to the Joseon Art Exhibition

1934 Participated in art organizations as a member of the Joseon Art Research Society

1939 held the ***1st Park Seung-mu Solo Exhibition*** at the Cheongjin Joseon Center

1945 Submitted entry to the ***Art Exhibition of Liberation Commemorative Cultural Festival*** at Deoksugung Palace, Seokjojeon

1949, 1953 Refused to submit entry to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Korea due to its unfairness, worked as an independent artist

1957 Received the Chungcheongnam-do Art and Culture Award

1960 Held solo exhibitions in Daejeon and Honam regions, worked as an independent artist

1980 Passed away on July 25

1982 Publication of Korean Painting: Simhyang Park Seung-mu’s Painting Collection, Yekyong Publishing Co.

2005 Commemorative Academic Symposium for 25th Anniversary of Death of Simhyang Park Seung-mu, hosted by the Chungbuk Fine Arts Association

2006~2007 Commemorative Retrospective for 26th Anniversary of Death of Simhyang Park Seung-mu at Daejeon Museum of Art

2008 Memorial Ceremony for the 28th Anniversary of the Death of Simhyang Park Seung-mu on July 25, 2008, at the graveyard in Mokdal-dong, Jung-gu, Daejeon

2009 The Simhyang Promotion Committee published Simhyang Park Seung-mu: Wandering, the Deep and Mellow Fragrance, Critical Biography and Collection of Posthumous Paintings

월전(月田) 장우성(張遇聖)

Chang Woo-soung

1912 ~ 2005

1912 충청북도 충주에서 출생

1941~1944 《조선미술전람회》연속 4회 특선

1946~1961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역임

1949~1976 《대한민국미술전람회》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역임

1950~2002 국내외 개인전 14회 가짐

1965 미국 워싱턴에 동양예술학교를 설립

1970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이 됨

1971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상

1971~1974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역임

1980 프랑스 정부 초청으로 파리 세르누치미술관에서 초대 개인전 개최

1982 서독 쾰른시 초청으로 쾰른시립동아시아박물관에서 개인전 개최

1988 일본 동경 세이부미술관에서 세이부미술관과 아사히 신문사 초청 개인전 《한국화의 거장 장우성》전 개최

1991 월전미술관 한벽원을 개관

1995 원광대학교 명예철학박사 수여

2001 대한민국 금관문화훈장 수훈

2003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중대가: 장우성·리커란》전을 가짐

2005 2월 28일 별세

2007 8월 이천시립월전미술관이 개관됨

2010 《당대 수묵대가: 한국 장우성·대만 푸취안푸》전, 이천시립월전미술관

2011 《한국 수묵대가: 장우성·박노수 사제동행》전,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최근

2023 《월전 장우성의 백두산 천지도 초본과 1970-80년대 회화》, 이천시립월전미술관

2023 《화룡점정: 월전의 후기 회화》, 이천시립월전미술관

1912 Born in Chungju, Chungcheongbuk-do

1941~1944 Won special selections for four consecutive ***Joseon Art Exhibitions***

1946~1961 Served as a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Fine Arts

1949~1976 Served as an invited artist and member of the jury for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Korea***

1950~2002 Held 14 solo exhibitions at home and abroad

1965 Founded the School of Oriental Art in Washington, USA

1970 Became a member of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Republic of **Korea**

1971 Awarded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Republic of **Korea** Award
1971~1974 Served as a professor at Hongik University, College of Fine Arts

1980 Held a solo exhibition at the Cernuschi Museum in Paris, France, invited by the French government

1982 Held a solo exhibition at the Museum for East Asian Art Cologne, Germany, invited by the city of Cologne, West Germany

1988 Held a solo exhibition ***Korean Painting Master Jang Woo-soung*** at the Seibu Museum of Art, Tokyo, Japan, invited by the Seibu Museum of Art and Asahi Shimbun

1991 Opened Woljeon Art Museum Hanbyeokwon Art Museum,
1995 Received an honorary Doctor of Philosophy from Wonkwang University

2001 Received **Geumgwan Order of Cultural Merit** of Korea

2003 Participated in ***Great Modern Painters From Korea and China: Jang Woo-soung, Li Keran***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2005 Passed away on February 28, 2005

2007 Inauguration of Woljeon Museum of Art Icheon in August

2010 ***The Masters of Ink Painting: Jang Woo-soung, Korea, and Fu Juan fu, Taiwan***, at Woljeon Museum of Art Icheon

2011 ***Masters of Korean Ink Painting: Jang Woo-soung-Pak No-soo*** at Woljeon Museum of Art Icheon

Latest Events

2023 **Woljeon Jang Woo-soung’s Sketch for Cheonji on Mt.**

Baekdusan and Paintings from the 1970s and 1980s, Woljeon Museum of Art Icheon

Final Achievement: Woljeon’s Laster Works, Woljeon Museum of Art Icheon

운보(雲甫) 김기창(金基昶)

Kim Ki-chang

1913 ~ 2001

1913 서울에서 출생
1931 김은호 문하에서 수학
1937~1940 《조선미술전람회》 특선
1947 제1회 《우향-운보 부부전》, 三越백화점
1954 홍익대학교 미술학과 전임 강사로 임용됨
1956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초대작가가 됨
1962 수도여자사범대학 미술교육과 회화과장 역임
1971 3.1문화상 수상
1977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 수훈
1979 한국농아복지회 회장이 됨
1980 《화도 50년 기념 운보 김기창 초대 회고전》, 덕수궁 국립현대미술관
1981 대한민국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이 됨
1982 대한민국예술원장상 수상
1983 농아복지 기금마련 자선전 《운보 김기창 풍물 스케치전》, 국립현대미술관
1986 5.16 민족상. 서울시문화상 수상
1987 색동회장상 수상
1988 세종대학교(전 수도여자사범대학) 명예문학박사 수여
1993 《운보 김기창 팔순 기념 대회고전》, 예술의 전당
2000 《바보예술, 88년 운보 김기창 미수기념 특별전》, 갤러리 현대, 조선일보 미술관
2001 금관문화훈장 1월 23일 별세. 운보문화재단이 설립됨

최근

2017 《THE LUTHER EFFECT》, 독일역사박물관(베를린, 독일)
2024 운보 김기창 특별전 《더 라이프 오브 지저스(The Life of Jesus)》, 서울미술관

1913 Born in Seoul, Korea
1931 Studied under Kim Eun-ho
1937~1940 Won special selection at the Joseon Art Exhibition
1947 1st <i>Uhyang - Woonbo Couple Exhibition</i> , Mitsubishi Department Store
1954 Appointed as a full-time lecturer at the Department of Art, Hongik University
1956 Served as an invited artist for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Korea
1962 Served as the head of the Painting Division of the Department of Art Education at Soodo Women’s Teachers College
1971 Awarded the Samil Prize
1977 Received Eungwan <i>Order of Cultural Merit</i> of Korea
1979 Served as the first chairperson of the Korea Deaf-and-Mute Welfare Association
1980 <i>Retrospective Exhibition of Kim Ki-chang in commemoration of the 50th year of his artistic career</i> , MMCA Deoksugung
1981 Awarded the Moran Medal of the Order of Civil Merit, became a member of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 Republic of Korea
1982 Awarded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 Republic of Korea Award
1983 Charity exhibition <i>Woonbo Kim Ki-chang Pungmul Sketch Exhibition</i> for fundraising for Deaf-and-Mute Welfare, MMCA
1986 Awarded the 5.16 National Medal, the Seoul City Culture Award
1987 Awarded the Saekdonghoe Chairman’s Award
1988 Received an honorary doctor of letters from Sejong University (formerly Soodo Women’s Teachers College)
1993 <i>The 80th Anniversary Celebration Retrospective of Woonbo Kim Ki-chang</i> , Seoul Arts Center
2000 Babo Art, Special Exhibition to Commemorate the 88th Birthday of Woonbo Kim Ki-chang, Gallery Hyundai, Chosun Ilbo Art Museum
2001 Received Geumgwan Order of Cultural Merit Passed away on January 23, 2001. Woonbo Foundation of Culture was established

Latest Events

2017 <i>THE LUTHER EFFECT</i> , German Historical Museum, Berlin, Germany
2024 Woonbo Kim Ki-chang Special Exhibition <i>The Life of Jesus</i> , Seoul Museum

남정(藍丁) 박노수(朴魯壽)

Pak No-soo

1927 ~ 2013

1927 충청남도 연기군 출생
1932 조모 광귀수님으로부터 천자문을 학습, 부친으로부터 서예를 배움
1945 충북 청주상업학교 졸업, 청진 이상범(靑田 李象範)을 사사 (종로구 누하동)
1946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제1회화과 입학
1952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동양화과) 졸업
1956~1962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1957~1960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추천작가
1962~1982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1979 《동양화가의 눈으로 본 한국의 자연전(실경산수화전)》, 국립현대미술관
1981 《한국미술 '81전》, 국립현대미술관
1984 《'84현대미술 초대전》, 국립현대미술관
1985 《현대미술 40년전》, 국립현대미술관 「한국화의 진수 고구(考究)」 논문 발표 제8회 《중앙미술대전》 심사위원
1988 서울올림픽 미술제 운영위원
1995 대한민국 은관(銀冠)문화훈장 수훈
1996 월전미술관 동방예술 연구회 강좌
1996~1998 3·1 문화상 예술부분 심사위원
2005 서울시립미술관에 작품 52점 기증
2010 『화필인생』 에세이집 발간, 컬처북스
2011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 설립을 위한 기증협약 체결
2012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위촉
2013 2월 25일 별세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 개관

1927 Born in Yeongi-gun, Chungcheongnam-do
1932 Learned Chinese characters from his grandmother, Gwak Gui-su, and calligraphy from his father
1945 Graduated from Cheongju Commercial School, Chungbuk, and studied under Cheongjeon Lee Sang-beom (靑田 李象範), Nuha-dong, Jongno-gu
1946 Entered the Painting Department I at the College of Fine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52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Oriental Painting, College of Fine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56~1962 Served as a professor at the College of Fine Arts at Ewha Womans University
1957~1960 Served as a recommended artist for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Korea
1962~1982 Served as a professor at the College of Fine Art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1979 <i>Korean Nature through the Eyes of an Oriental Painters (Real Scenery Landscape Painting Exhibition)</i> , MMCA
1981 <i>Korean Art ' 81 Exhibition</i> , MMCA
1984 '84 Invitational Exhibition of Contemporary Art, MMCA
1985 <i>40 Years of Contemporary Art</i> , MMCA Published paper, “Research on the Essence of Korean Painting,” MMCA
1985 Served as a judge of the 8th Joongang Fine Arts Prize
1988 Served as a committee member for the Seoul Olympic Arts Festival
1995 Received Eungwan Order of Cultural Merit of Korea
1996 Lectured at Research Society of Oriental Art in Woljeon Museum of Art
1996~1998 Served as an Art Section Jury for the Samil Prize
2005 Donated 52 works to the Seoul Museum of Art
2010 Published essay collection Life of a Painter, CultureBooks
2011 Signed a donation agreement to establish Jongno Pak No-soo Art Museum in Jongno-gu, Seoul
2012 Appointed as an Emeritus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3 Passed away on February 25 Inauguration of Jongno Pak No-soo Art Museum opened in Jongno-gu, Seoul

창운(蒼暈) 이열모(李烈模)

Lee Yul-mo

1933 ~ 2016

- 1933 충청북도 보은에서 출생
- 1953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입학
- 1961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 1962~1995 국내외 초대전 140회 이상 참여
- 1963 서울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졸업
- 1968 미국 하워드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수료
- 1968~1984 경희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역임
- 1971~2004 국내외 개인전 8회 가짐
- 1974 《대한민국미술전람회》문공장관상
- 1975 《대한민국미술전람회》문공장관상
- 1984~1998 성균관대학교 교수 역임
- 1994 《대한민국미술대전》운영위원이 됨
- 1998 대한민국 국민훈장 목련장 수훈
- 1999~2001 월전미술관 관장 역임
- 2000 《동양화 새천년》,《수묵화 새천년의 오늘전》, 서울시립미술관
- 2003 《대한민국 원로작가 초대전》, 백민미술관(보성)
- 2004 개인전, 동산방(서울)
- 2005 《새천년 한국화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 2007 《한국화 1953~2007전》, 서울시립미술관
《월전 그 격조의 울림》, 이천시립월전미술관
미국 이주
- 2008 개인전, L.A. 비전 아트홀
- 2012 《자연에 취한 한세상 (창운 이열모 팔순 기념 회고전)》,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전관, 서울 월전미술관 전관
- 2015 보은군에 미술작품 268점, 서적 446권 기증
- 2016 별세
- 2019 《피서 : 더위를 피하는 방법》, 이천시립월전미술관

- 1933 Born in Bo-eun, Chungcheongbuk-do
- 1953 Department of Painting, College of Fine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admitted to the program
- 1961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Painting, College of Fine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 1962~1995 Participated in over 140 invitational exhibitions at home and abroad
- 1963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Paint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 1968 Completed the course in the Painting Department, Howard University, USA
- 1968~1984 Served as a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Art Education, Kyung Hee University
- 1971~2004 Held 8 solo exhibitions at home and abroad
- 1974 Awarded the Minister of Culture and Public Award at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Korea
- 1975 Awarded the Minister of Culture and Public Award at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Korea
- 1984~1998 Served as a professor at Sungkyunkwan University
- 1994 Became a committee member of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Korea
- 1998 Awarded the Mongnyeon Medal of the Order of Civil Merit,
- 1999~2001 Served as the director of Woljeon Museum of Art
- 2000 Participated in ***The New Millennium of Oriental Painting, Today of the New Millennium of Ink Painting***, Seoul Museum of Art
- 2003 Participated in ***Senior Korean Artists Invitational Exhibition***, Baekmin Museum of Art, Boseong
- 2004 Held a Solo Exhibition, Dongsanbang, Seoul
- 2005 Participated in ***Korean Paintings of the New Millennium***, Hangaram Art Museum, Seoul Arts Center, Seoul, Korea
- 2007 Participated in ***Korean Paintings 1953~2007***, Seoul Museum of Art
- 2007 Participated in ***Woljeon The Resonance of the Grace***, Woljeon Museum of Art Icheon
- 2007 Moved to the United States
- 2008 Held a solo exhibition, Vision Art Hall, L.A.
- 2012 Held ***Changwoon Lee Yul-mo 80th Birthday Celebration Retrospective***, A world enchanted by nature, all venues of Woljeon Museum of Art Icheon & Seoul
- 2015 Donated 268 artworks and 446 books to Boeun-gun
- 2016 Passed away
- 2019 ***The Summer Vacation***, Woljeon Museum of Art Icheon

이석(以石) 임송희(林頌羲)

Lim Song-hee

1938 ~ 2022

- 1938 충북 증평에서 출생
- 1956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교 회화과 입학
- 1963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교 회화과 졸업
- 1968~1971 연3회 전국미술지도상 수상
- 1973~1998 국외초대전 13회 참여
- 1974~2010 국내초대전 450회 참여
- 1983~2003 덕성여자대학교 동양화과 교수 역임 국내외 개인전 8회 가짐
- 1998 제1회 겸재미술상 수상
1998 대전광역시 시립미술관 개관기념전, 대전시립미술관
1998 <’98 동경 BESTO 국제서화전>, 동경박물관(일본)
- 1999 <<현대미술 특별전: 재경 충북작가>>, 청주 예술의전당
- 2000 <<한국화회전>>, 서울시립미술관
- 2002 《이석 임송희전, 한중수교10주년기념》, 남경박물관(강소, 중국)
- 2002~2003 덕성여자대학교 예술대학 학장 역임
- 2002 남경박물관 고문
- 2003 덕성여자대학교 명예교수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
- 2007 《월전, 그 격조의 울림》, 이천시립월전미술관
- 2014 《이석 임송희의 예술세계》, 이천시립월전미술관
- 2016 《백두산을 그리다: 한국 현대 백두산도》, 이천시립월전미술관
- 2022 별세

최근

- 2023 성북의 청괴들 《붓 끝에 기대어 홀로 가리라》, 성북구립미술관

- 1938 Born in Jeungpyeong, Chungbuk, Korea
- 1956 Entered the Department of Painting, College of Fine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 1963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Painting, College of Fine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 1968~1971 Awarded the National Art Teaching Award for three consecutive years
- 1973~1998 Participated in 13 overseas invitational exhibitions
- 1974~2010 Participated in 450 domestic invitational exhibitions
- 1983~2003 Served as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Oriental Painting at Duksung Women’s University, held 8 solo exhibitions at home and abroad
- 1998 Awarded the 1st Gyeongjae Art Award
- 1998 Participated in Commemorative Exhibition of the Inauguration of Daejeon Museum of Art, Daejeon
- 1998 Participated in ***’98 Tokyo BESTO International Painting and Calligraphy Exhibition***, Tokyo Museum, Japan
- 1999 Participated in ***Special Exhibition of Contemporary Art: Chungbuk, Artists in Seoul***, Cheongju Arts Center
- 2000 Participated in the ***Korean Painting Society Exhibition***, Seoul Museum of Art
- 2002 Held Iseok ***Lim Song-hee, Commemorative Exhibition of the 1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Nanjing Museum, Jiangsu, China
- 2002~2003 Served as the dean of the College of Fine Arts, Duksung Women’s University
- 2002 Served as an advisor, Nanjing Museum
- 2003 Appointed as an Emeritus Professor at Duksung Women’s University Received Commendation by the Vice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2007 Participated in ***Woljeon The Resonance of the Grace***, Woljeon Museum of Art Icheon
- 2014 Participated in ***The Art World of Iseok Lim Song-hee***, Woljeon Museum of Art Icheon
- 2016 Participated in ***Painting and Imagining Baekdu Mountains***, Woljeon Museum of Art Icheon
- 2022 Passed away

Latest Events

- 2023 “Leaning on the End of the Brush, Going Alone,” Seongbuk Museum of Art

소정(素丁) 황창배(黃昌培)

Hwang Chang-bae

1947 ~ 2001

1947 서울출생
1966~1970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1973~1975 서울대학교 대학원 회화전공 졸업
1977 국전 문화공보부장관상 수상
1978 국전 대통령상 수상 <秘52> 출품
1981 제1회 개인전, 동산방(서울)
1982~1984 동덕여자대학교 조교수
1984~1986 경희대학교 조교수
1986~1991 이화여자대학교 부교수
1987 제2회 개인전, 선화랑(서울)
1987 선미술상 수상
1990 제3회 개인전, 카를로 그로셋티 화랑(밀라노, 이탈리아)
충북 괴산군 백봉리로 작업실 이전
1991 《제4회 개인전》, 갤러리 상문당, 두손 갤러리(서울)
《제5회 개인전》, 월드 갤러리(부산)
1993 《제6회 개인전》, 갤러리 화인아트(보스톤, 미국)
1996 《제7회 개인전》, 예화랑(서울)
1997 《제8회 개인전》, 가나보부르 갤러리(파리, 프랑스)
1998 《제9회 개인전》, 선화랑(서울)
1999~2001 동덕여자대학교 초빙교수
2001 별세
2003 《황창배-무법의 신화》, 동덕아트갤러리(서울)
2012 대구시립미술관 주제전 1부 《민성(民性)》전, 대구시립미술관
2014 《기증작가 초대전 I - 이세득·황창배》,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2015 한국화 소장품특별전 《멈추고 보다》, 국립현대미술관(과천)
《충북연고 작고작가 예술과 정신 조명전》, 충북문화관(청주)
2017 스페이스 창배 첫 번째 기획전,
《파격의 뿌리 : 철농 이기우와 소정 황창배 서예. 전각전》
2018 소마미술관 초대전 《황창배 - 유쾌한 창작의 장막》, 소마미술관(서울)
SeMA(서울시립미술관) 개관 30주년 기념전
《디지털 프롬나드(Digital Promenade)》, 서울시립미술관
2019 《소화-한국 근현대 드로잉》, 소마미술관(서울)
검재정선미술관 10주기 기념 초대전 《황창배의 일탈, 한국화의 이정표》
2020 《미술관에 書 : 한국 근현대 서예전》,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2022 한국의 채색화 특별전 《생의 찬미》, 국립현대미술관(과천)
2023 제주도립미술관 기획전 《무릉도원보다 지금 삶이 더 다정하다》
진주시·국립진주박물관 공동기획 《한국 채색화의 흐름2》,
진주시립여성자미술관, 국립진주박물관
세종미술관 기획전시 《필묵변혁-송수남 황창배》, 세종미술관(서울)
《괴산의 그림쟁이' 황창배 작고 22주기 기획초대전》, 웨마미술관(청주)

1947 Born in Seoul, Korea
1966~1970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Painting, College of Fine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73~1975 Graduated from Graduate School of Paint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1977 Awarded the Minister of Culture and Public Affairs Award at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Korea
1978 Awarded the Presidential Award at the National Art Exhibition of Korea, submitted “Secrecy 52”
1981 Held the 1st solo exhibition, Dongsanbang, Seoul
1982~1984 Served as an assistant professor at Dongduk Women’s University
1984~1986 Served as an assistant professor at Kyung Hee University
1986~1991 Served as an assistant professor at associate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1987 Held the 2nd solo exhibition, Sun Gallery, Seoul
1987 Awarded the Sun Art Award
1990 Held the 3rd solo exhibition, Studio Carlo Grossetti, Milan, Italy
1990 Moved his studio to Baekbong-ri, Goesan-gun, Chungbuk
1991 Held the 4th solo exhibition, Gallery Sangmundang, Duson Gallery, Seoul
1991 Held the 5th solo exhibition, World Gallery, Busan
1993 Held the 6th solo exhibition, Gallery Fine Art, Boston, USA
1996 Held the 7th solo exhibition, Gallery Yeh, Seoul
1997 Held the 8th solo exhibition, Galerie Gana-Beaubourg, Paris, France
1998 Held the 9th solo exhibition, Sun Gallery, Seoul
1999~2001 Served as a visiting professor at Dongduk Women’s University
2001 Passed away
2003 *Hwang Chang-bae - The Myth of Lawlessness*, Dongduk Art Gallery, Seoul
2012 *Minseong*, Part 1 of the theme exhibition, Daegu Museum of Art
2014 *Exhibition of Donated Art Works I – Lee SeDuk· Hwang ChangBae*, SeMA Buk Seoul Museum of Art
2015 Special Exhibition of Collections in Korean Painting Stop and Behold, MMCA Gwacheon
Art and Spirit of Chungbuk-based Late Artists, Chungbuk Culture Hall, Cheongju
2017 Space Changbae’s first special exhibition, *Roots of Breakaway: Calligraphy and Seal Engraving of Cheolnong Lee Ki-woo and Sojeong Hwang Chang-bae*
2018 Soma Invitational Exhibition *Hwang Chang-bae: The Tent of Delights*, Soma (Seoul Olympic Museum of Art), Seoul
SeMA 30th Anniversary: Digital Promenade, Seoul Museum of Art
2019 *Sohwa -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Drawings*, Soma (Seoul Olympic Museum of Art), Seoul
Invitational exhibition commemorating 10th anniversary of Gyeongjae Jeong Seon Art Museum *Hwang Chang-bae’s Breakaway, Milestones in Korean Painting*
2020 *The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Writing*, MMCA Deoksugung
2022 Special Exhibition of Korean Polychrome Painting *Prayer for Life*, MMCA Gwacheon
2023 Jeju Museum of Art special exhibition *Life is now kinder than paradise*, Jeju Museum of Art
Jinju City-Jinju National Museum joint exhibition *The Flow of Korean Polychrome Paintings 2*, Rhee Seund Ja Jinju Art Museum, Jinju National Museum
Sejong Center Special Exhibition *Evolution of Brush and Ink: Song Soonam and Hwang Changbae*, Sejong Museum, Seoul
The Painter of Goesan, Special Exhibition commemorating the 22nd anniversary of the death of Hwang Chang-bae, Schema Art Museum, Cheongju

충북 한국화의 맥

2024. 3. 14. (목) ~ 4. 1. (월)

충북갤러리

인사아트센터 2층 인사동길 41-1

전시 개요

발행인 | (재)충북문화재단 이사장 김영환

주최 | 충청북도

주관 | 충북문화재단

전시총괄 | 손명희(전시운영TF팀장)

전시진행 | 이신아 학예사

작품평론 | 송희경 경재정선미술관장

작품사진 | 임장할

작품운송 | 익스아트

영문번역 | 스튜디오 알마

도록제작 | 더문

표지디자인 | 팡파르

도움을 주신 분들

유가족, 가나문화재단, (재)운보문화재단

월전미술문화재단, 조병화문학관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 코리아나미술관

황창배미술관, 임정아, 개인소장가 등

발행처 | (재)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김갑수

충북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94번길 7

충북문화예술인회관 4층

http://www.cbfc.or.kr/

The Legacy of Korean Painting in Chungbuk

Mar 14 (Thu) ~ Apr 1 (Mon), 2024

Chungbuk Gallery

2nd fl., Insa Art Center, 41-1, Insadong-gil, Jongno-gu, Seoul, Korea

Exhibition Overview

Publisher | Kim Young-hwan, Chairman of Chungbuk Cultural Foundation

Hosted | Chungcheongbuk-do

Organized by | Chungbuk Cultural Foundation

Exhibition Supervisor | Son Myoung-hee (Exhibition Management TF Team Lead)

Exhibition Operation | Lee Shin-ah (Curator, Chungbuk Gallery)

Critic | Song Hee-kyung, Director of Gyeongjae Jeongseon Art Museum

Photo | Im Jang-hwal

Artwork Transportation | iksArt

English Translation | Studio ALMA

Catalog Production | Themun

Cover Design | Fanfare

Special Thanks to

Families of Artists, Gana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Woonbo Foundation of Culture, Woljeon Foundation for Art and Culture

Cho ByungHwa Museum, Jongno Pak No-soo Art Museum

Coreana Museum of Art, Hwangchangbae Museum

Lim Jung-a, Private Collectors

Published by | Kim Gap-soo, CEO of Chungbuk Cultural Foundation

4th fl. Chungbuk Cultural Artist Center, 7, Hyanggun-ro 94beon-gil,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http://www.cbfc.or.kr/



충북갤러리 |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41-1 | Tel. 070-4224-6240~1

Chungbuk Gallery | 41-1, Insadong-gil, Jongno-gu, Seoul, Korea | Tel. +82-(0)70-4224-6240~1



코리아나미술관 | space*c | 財團 法人 月田美術文化財團 | (재)운보문화재단 |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 | 조병화문학관 | 능성바다미술관 | 가나문화재단



충북
한국화의
맥

The legacy of Korean painting
in Chungbuk